202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4. 2. 15.(목), 14:00 ~ 17: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전봉희, 곽동엽, 박경식, 손태진, 송은석, 안선호, 이찬희, 이향미, 정광용, 정정남, 최지융(탄원) (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개
2	울주 천전리 각석 지정명칭 변경	공개
3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등 4건 금석문 탁본	공개
4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이전계획	공개
5	서울 인조별서 유기비 주변 아파트 단지 건립(재심의)	공개
6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 주변 건축물 양성화(2차)	공개
7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3차)	공개
8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3차, 이○○)	공개
9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2차, 전○○)	공개
10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2차, 강○○)	공개
11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2차, 전○○)	공개
12	정읍 피향정 주변 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	공개
13	정읍 피향정 주변 일반음식점 철거 후 신축	공개
14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자동차 관련시설 등 신축	공개
15	남한산성 수어장대, 숭렬전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안)	공개
【검토사항】		
16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주변 선원 건립 기본설계(안) 검토(3차)	공개
【보고사항】		
17	중점관리 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23년 결과 및 ‘24년 계획 보고	공개
1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13건) -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주변 JTBC <민생네컷> 방송촬영(유튜브)	공개

	-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로 조성(변경허가) -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비 주변 태안사 성기암 무설전 건립 - 고흥 능가사 대웅전 주변 주차장 및 야영장 가로등 설치 - 장흥 보림사 서 승탑 주변 태양광 패널 설치 - 안성 객사 정청 주변 기존도로 확장(진입로 신설) - 홍성 고산사 대웅전 주변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및 작업로 개설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주변 공동주택 신축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주변 도로 개설 - 창녕 석빙고 주변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 제주향교 대성전 주변 한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변경허가) - 공주 계룡산 중악단 주변 이동화장실 부지조성 및 설치 -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주변 농막(비닐하우스) 설치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4-02-001

1.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강원 홍천군 소재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원 홍천군 소재 「수타사대적광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23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1차 회의(2023.11.16.)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3.12.29～’24.01.27)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강원도지사

(2) 대상문화재 : 시도유형문화재 「수타사대적광전」

○ 소 재 지 : 강원 홍천군 영귀미면 수타사로 473

○ 지 정 일 : 1971. 12. 16.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洪川 壽陀寺 大寂光殿)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수타사

○ 소 재 지 : 강원 홍천군 영귀미면 수타사로 473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　　량 : 1동

○ 지정면적 : 156.6㎡

○ 구조/형식/형태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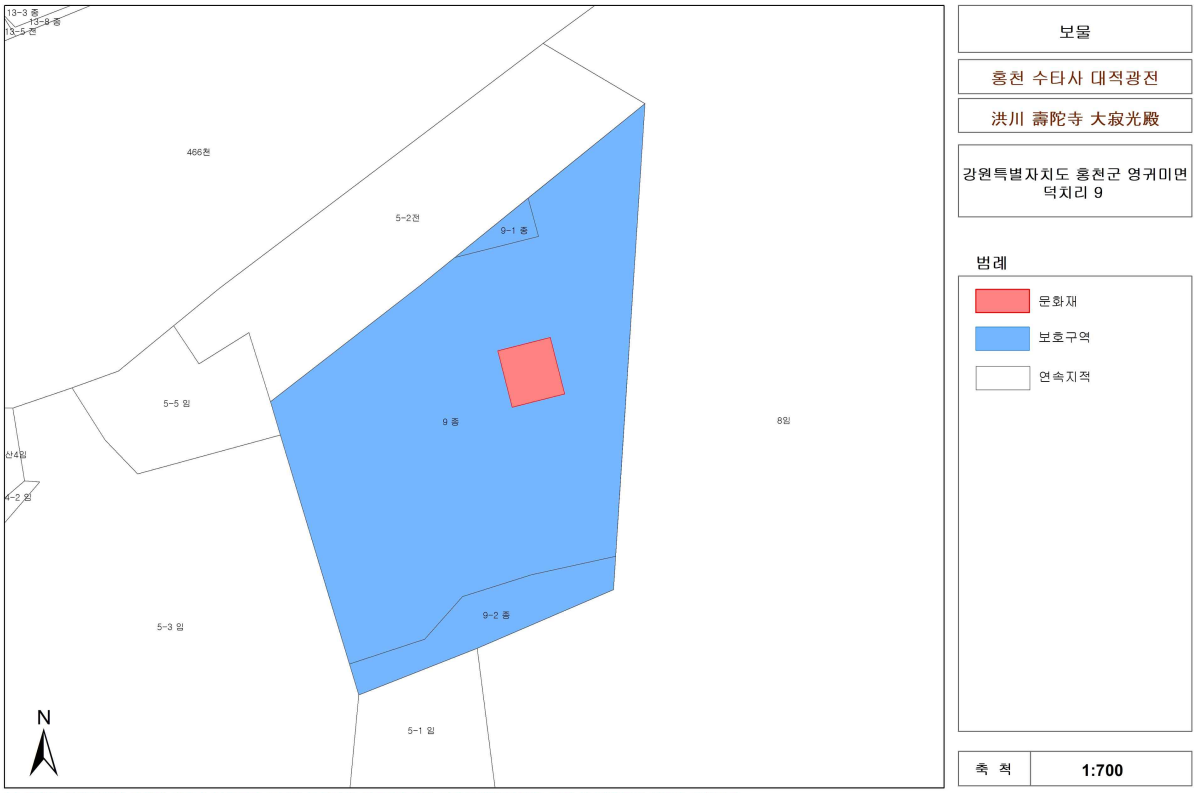
라. 현지조사 의견(2023.02.23.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형도면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1.16.>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2.23	대상문화재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5 월 4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은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수타사로 473(덕치리 9번지)에 소재한다. 대한불교 조계종 월정사의 말사이다. 영귀미면은 홍천읍의 동쪽에 자리한 면으로서, 1917년 동면으로 개칭되었다가 2021년 주민의 청으로 원이름을 되찾았다. 홍천군을 서에서 동으로 관통하는 홍천강(일명, 華陽江)의 지류인 덕치천, 성수리천, 개운천 등이 가지를 뻗듯 펼쳐진 주변으로 작지만 비옥한 경지를 가지고 있다. 수타사는 그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덕치천 계곡의 중류 유역에 있으며, 덕치천과 홍천강 본류 사이에 있는 공작산(孔雀山, 887.4m) 아래에 있다. 공작산은 한국의 명산 100에 선정될 정도로 경치가 아름다운 산으로 인근에서 가장 높고 가파른 곳이기도 하며,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의 태실이 있었다고 전한다. 수타사는 홍천읍으로부터 직선거리 6km 남짓 거리의 가까운 곳으로 수타사 주변의 덕치천 계곡을 따라서 수타사 농촌테마공원과 오토캠핑장, 공작산 생태숲, 수타사 생태숲, 수타사 산소길 등 유원지가 개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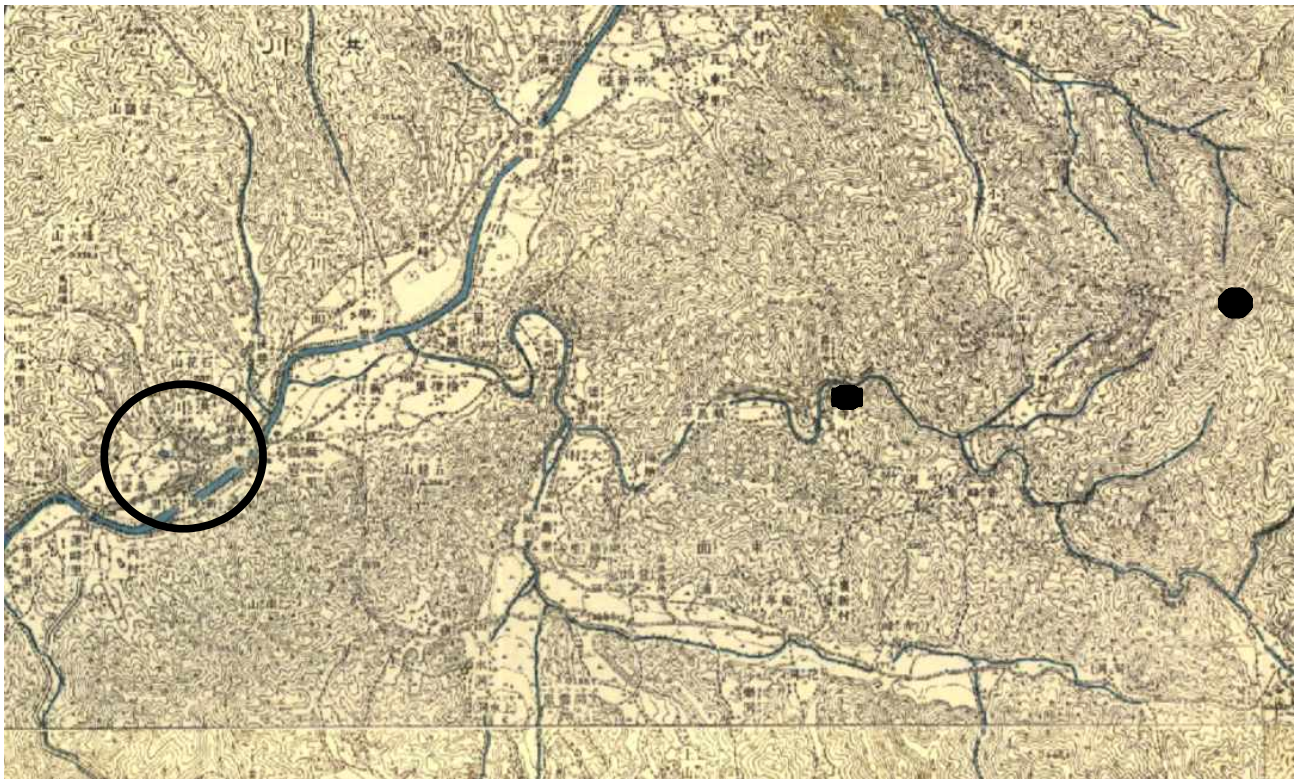


그림 1 홍천읍과 수타사, 공작산 정상의 위치
(바탕지도 출전 :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daedong)

수타사는 비록 공작산 아래에 있다고 하지만, 공작산의 기슭에 바로 자리한 것이 아니고, 덕치천 건너편에 서향을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입지는 아래의 그림2.에서 보듯, 고리 모양으로 생긴 동그란 지형의 가운데 조금 볼록한 곳의 서사면이 된다. 『홍

천 수타사 대적광전 국가지정문화제 지정신청보고서』(홍천군, 2022. 이하 『신청보고서』로 약함)에선 이러한 입지를 풍수지리적으로 '공작포란지지(孔雀抱卵之地)'의 명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침 등고선이 표기된 지도를 보면 말 그대로 수타사가 자리한 작은 봉우리를 주변의 산세가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림 2. 및 그림 3. 참조)

그림 2 수타사 주변의 지형(좌측 원은 승탑들의 위치)

그림 3 수타사가 자리한 주변의 등고선 (1970년대 지도)

공작산이 인근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사방으로 많은 계곡을 가지고 있으니 사찰이 들어설 만하다. 사찰 측에 전하는 사적기류의 자료들에서는 8세기 초 원효(元曉)가 우적산(牛跡山) 아래에 창건한 일월사(日月寺)에서 비롯하였다고 하나, 원효의 생존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근거가 약하다. 다만 강원도 영서지역에 불교문화가 전파되는 역사적 상황과 홍천 읍내에 있는 삼층석탑의 조성 시기 등을 고려할 때, 9세기경으로 창건의 시기를 올려 잡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시 사적기들의 기록을 따르면, 지금의 자리에 사찰이 자리한 것은 조선 선조 연간인 1567년~1572년경이었다고 전하며, 사찰의 이름 역시 이때 일월사(日月寺)에서 수타사(水墮寺)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관찬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洪川縣」「佛宇」조에 '水墮寺 在孔雀山'이라는 기록이 있어, 이 책이 간행된 1530년, 나아가 '신증' 이전의 기록이므로, 『동국여지승람』의 수정본이 완성된 1484년(성종 17)에는 이미 수타사로 개명되었음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다시 한자를 바꾸어 수타사(壽陀寺)로 이름을 바꾼 것은 1811년(순조 11)의 일이라고 한다.

현재 사찰 내에는 1636년(인조 14)에 세운 대적광전 외에 1658년(효종 9)에 세운 홍회

루(興懷樓, 도 유형문화재 제172호), 1674년(현종 15)에 세운 봉황문(鳳凰門) 등의 건축물과 1670년(현종 11)에 조성한 동종(보물 제 11-3호), 1676년(숙종 2)에 조성한 소조 사천왕상(도 유형문화재 제 121호) 등 17세기의 연기를 갖는 불교 유적이 다수 남아있고, 7기의 부도와 2기의 탑비가 있다.

수타사 동종은, 조선 중기의 유명한 승려 장인인 사인(思印) 비구가 제작한 것으로서, 그의 소작으로 확인된 8기의 동종이 일괄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 8개의 동종은, (1) 포항 보경사 서운암 동종(1667, 5개의 유두), (2) 문경 김룡사 동종(1670, 직지사 성보박물관 소장, 용뉴, 십자형 당좌무늬), (3) 홍천 수타사 동종(1670, 용뉴, 십자형 당좌무늬), (4) 안성 청룡사 동종(1674, 용뉴와 대통), (5) 서울 화계사 동종(1683, 원 영주 희방사, 쌍룡뉴), (6) 통도사 동종(1686, 8괘를 새김), (7) 의왕 청계사 동종(1701), (8) 강화 동종(1711, 198cm x 138cm, 가장 크고, 먼저 보물로 지정) 등으로서, 1667년부터 1711년까지 45년간에 걸쳐 있으면서, 명문을 가지고 있고, 모두 크기와 형태, 문양과 구성에서 조금씩 차이를 갖는다. 이 때문에 이들 8기의 동종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 걸치는 기간 우리나라 동종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수타사의 동종은 당좌(撞座)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십자로 뻗어나간 불꽃 문양을 갖고 있으며, 용뉴는 있지만 용통은 없는 절충적 성격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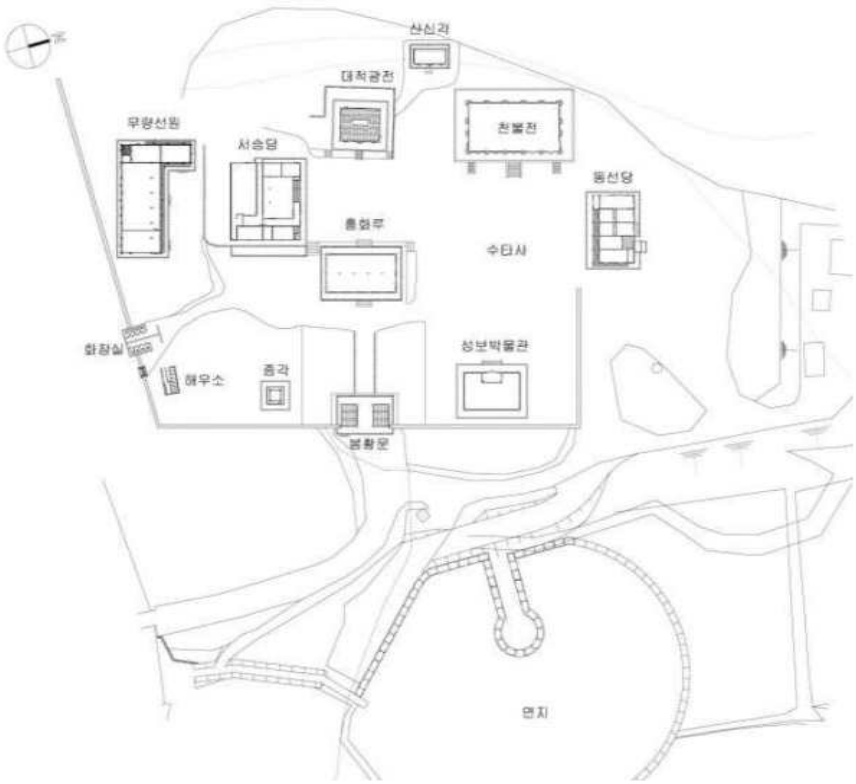


그림 4 홍천 수타사 배치도 (『신청보고서』에서 전재) 승탑과 승탑비는 봉황문으로부터 약 400m 앞의 진입로 상에 있다.

또 승탑비 가운데 수타사와 관련된 많은 일화를 남기고 있는 서곡대사 찬연(粲淵, 1702-1768)의 탑비인 서곡당 선사탑비(瑞谷堂禪師塔碑, 1769)는 조선 중기의 명신이자 이름난 서화가인 김상숙(金相肅, 1717-1792)이 글씨를 쓰고 그의 형인 김상복(金相福, 1714-1782)이 글을 지은 것으로 서예사의 주요한 자료가 된다.
같은 18세기의 유물로, 영상회상도(靈山會上圖, 1762년, 도 유형문화재 제122호)와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 1776년, 도 유형문화재 123호)가 있는데, 각각 금어 진찰과 비구 설훈이 그린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복장유물은 일괄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76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1758년 화승 순경(順瓊)과 덕순(德淳)의 제작이다. 위 탑비의 주인인 서곡대사와의 관련을 생각해볼 수 있다.
수타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월인석보』 권17, 권18 1책(보물 제757-5호)이다. 1918년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에 그 존재가 처음 언급된 적이 있다 하나, 세상에 널리 소개된 것은 1957년의 일이다. 현재 『월인석보』는 14권 12책 정도가 전할 뿐인데, 수타사에서 전한 간본은 기존 유전본에서 빠진 유일본이며, 1459년(세조 5)의 초간본으로 추정되어 더욱 가치가 있다.
이 『월인석보』의 간본이 발견된 곳은 봉황문 안에 있는, 사천왕상의 하나인 지국천왕상이다. 수타사 사천왕상은 소조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소조상 답게 높이가 3.2m에 달하는 큰 규모이며 17세기 소조 사천왕상의 유행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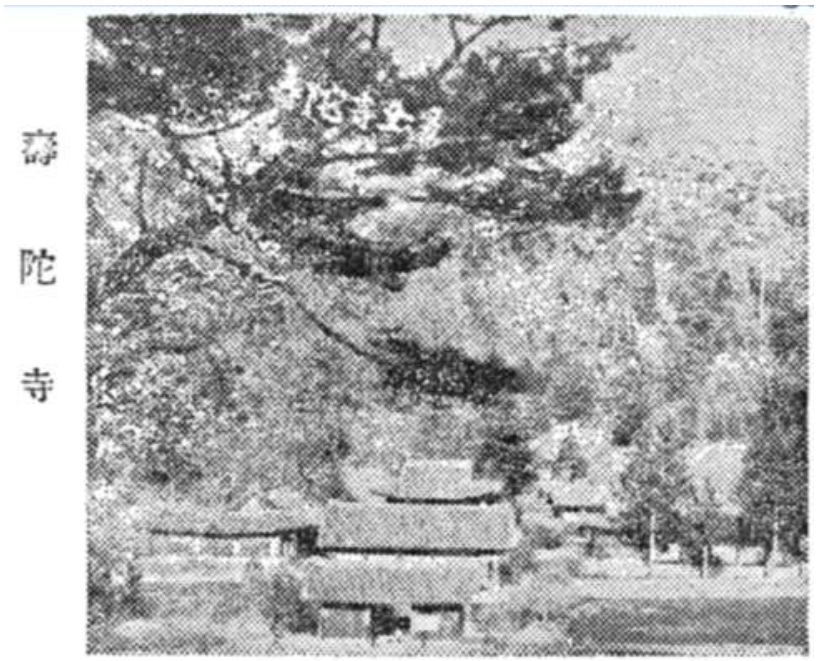


그림 5 1959년 6월 4일자 조선일보

2. 연혁

수타사의 주불전은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이다. 지형의 경사를 따른 동-서의 축을 따라, 서쪽으로부터 조금씩 올라가면서 봉황문-홍회루-대적광전이 앞뒤로 나란히 있다. 강원도의 많은 사찰이 한국전쟁 기간에 피해를 보았던데 반해, 수타사는 근현대기에 많은 경관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 중심축만큼은 17세기 중창기의 원형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타사의 내력을 정리한 사찰 측의 기록으로는, 『홍천현 동 공작산 수타사 사적(洪川縣東孔雀山水墮寺事蹟』(1688년)과 『건봉사 급 건봉사 말사 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事蹟』(1928년)[1]에 수록된 '홍천현 동 공작산 수타사 사적(洪川縣東孔雀山水墮寺事蹟' 등의 사적기 외에, 수타사 범종의 「명문」(1670), 「신건 운수암기(新建雲水庵記)」1690), 「화산현 동령 공작산 수타사 중복 개와기(花山縣東嶺孔雀山水墮寺重覆蓋瓦記)」(1709), 「수타사 상주 비로불 개금기문(水墮寺常住毘盧佛改金記文)」(1762년), 「공작산 수타사 개와기(孔雀山水墮寺蓋瓦記)」(1764), 「공작산 수타사 중수기(孔雀山水墮寺重修記)」(1861) 등의 기문들이 있다.

먼저, 창건에 대해서는 두 건의 사적기의 내용이 매우 자세한데, 두 기록 모두 신라의 고승 원효(元曉, 617-686)의 창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시기는 당(唐) 중종(中宗) 경룡(景龍, 707-710) 연간 혹은, 신라 성덕왕 7년 무신(戊申, 708)으로 특정하고 있어 시기에 착오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수타사가 우적산(牛跡山)에 일월사(日月寺)로 창건되었으나, 명(明) 목종(穆宗) 융경(隆慶, 1567-72) 연간 혹은, 조선 선조 2년 기사(己巳, 1569)에 공작산 아래로 이건하면서 수타사(水墮寺)로 개명하였다는 내용이 두 사적기에서 반복된다. 그런데 관찬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 「洪川縣」「佛宇」조에 이미 수타사(水墮寺)가 공작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늦어도 1530년, 혹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수정본이 완성된 1484년에는 이미 위치도 옮기고 이름도 바뀌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두 건의 사적기 가운데 숙종조에 쓰여진 사적기가 중국의 연호로 기간을 표기한 데 비해 만해 한용운(韓龍雲, 1879~1944)이 지은 근대기의 사적기엔 우리나라의 왕력으로 해를 특정한 것이 흥미롭다. 240년 뒤의 기록이 더 자세한 셈이다. 이처럼 두 사적기의 내용 가운데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은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점이 많다.

한편, 사찰 내에는 고려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삼층석탑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인근

1) 건봉사의 말사로, 백담사, 신흥사, 낙산사, 화암사(禾巖寺), 명주사(明珠寺), 영혈사(靈穴寺), 수타사, 심곡사(深谷寺), 오제암(烏啼庵)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 곳에서 신봉리사지 석탑(영귀미면), 희망리 삼층석탑(홍성읍), 괘석리 삼층석탑(두촌면), 양덕원 삼층석탑(남면) 등 같은 시기의 비슷한 석탑들이 다수 남아있어서, 고려시기에 수타사가 운영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조선 전기까지 이어져서 『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5세기엔 세조의 비이자, 예종과 성종 초에 걸쳐서 수렴청정을 실시하였던 정희왕후의 태실이 공작산에 모셔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에도 수타사의 관여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임진왜란 이후의 기록은 더욱 자세하며 비교적 신빙성이 있다. 그 내용을 두 사적기의 내용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홍천형 동 공작산 수타사 사적』/ 『건봉사 급 건봉사 말사 사적』의 순, 대적광전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은 밑줄 및 굵게 표기, 두 기록에 차이가 있는 것은 * 표기)

<u>1636년(인조 14) 공장(工岑) 법사(法師) 법당 중창 / 공잠 대적광전 중건</u>
1639년(인조 17) / 계일(戒一) 백련당 건립*
1644년(인조 22) 학준(學俊) 선백(禪伯) 선당 중창 / 학준 선당 중건
1647년(인조 25) 계철(戒哲) 승가(僧伽) 승당 중창 / 계철 승당 중건
1650년(효종 1) 도전(道詮) 사문(沙門) 정문 중창 / 도전 정문 중건, 쌍계암 창건*
1658년(효종 9) 승해(勝海), 정명(正明) 상인(上人) 홍회루 신건 / 승해, 정명 홍회루 중건
1670년(효종 11) 정특(正特), 대상(大尙), 천읍(天揖) 대덕(大德) 대종 주조,
/ 정특, 대상, 천읍, 대종 주조
1674년(효종 15) 법륜(法倫) 사문(沙門) 봉황문 신건 / 법륜 봉황문 창건
1676년(숙종 2) 여담(如湛) 사문(沙門) 사천왕상 신건 / 여담 사천왕상 소성
1677년(숙종 3) 천해(天海) 우바새(優婆塞) 청련당 신건/ 신사 청해 청련당 신건
1680년(숙종 6) 여민(汝敏) 사문(沙門) 향적전 신건 / 여민 향적전 건립
1681년(숙종 7) 지해(智海), 지행(智行) 도리(闍利) 백련당 중창/ 지해 지행 백련당 중건
1682년(숙종 8) 성민(性敏), 찬징(贊澄), 선찰(善察) 화상(和尙) 송월당 신건
/ 성민 찬징 선찰 송월당 창건*
1683년(숙종 9) 성념(省念), 찬원(贊源), 상서(尙嶼) 삼화(三和) 영월당 신건
/ 성념 찬원 상흘(尙屹) 영월당 창건
1688년(숙종 14) [정원(淨源) 씀] / 상봉(霜峰) 운수암 창건
<u>1709년(숙종 35) / 축초(竺草) 번와</u>
<u>1762년(영조 38) / 찬인(贊仁), 신법(信法) 대적광전 불상개금, 후불탱조성</u>
<u>1764년(영조 40) / 혜징(惠澄) 번와</u>
1811년(순종 11) / '水墮寺'를 '壽陁寺'로 개칭
<u>1861년(철종 12) / 윤흡(潤洽) 수타사 중수</u>
1869년(고종 6) / 덕파(德波) 승당 중건
1878년(고종 15) / 옥수암 중수

1882년(고종 19)	/ 덕파(德波) 대적광전 중수
1885년(고종 22)	/ 승흠(勝欽), 태연(泰演), 처경(處璟) 대적광전 단청
1903년(광무 4)	/ 취운(翠雲) 선당 중수
1910년(융희 4)	/ 설봉(雪峰) 대적광전 중수
1912년	/ 건봉사 말사 편입, 주지 이설봉(李雪峰)
1915년	/ 주지 김대오(金大悟)
1921년	/ 주지 정인목(鄭仁穆)
	/ [1928년 출간]

사적기의 내용은 여러 방증자료로 교차 확인된다. 우선, 수타사 동종의 명문(1670년)에는, 수타사를 1636년(崇禎 丙子)에 중창하고, 이후 1658년(順治 戊戌)까지 여러 전각을 모두 지었다고 하여, 위 사적기의 내용과 일치한다. 또, 2006년과 2012년 보수공사 시에 각각 고주 보아지와 불단 내부에서 묵서를 발견하였는데, 지워지거나 가려진 부분들이 있어 정확한 판독이 어렵지만, 계일(戒一)과 도전(道銓) 등 관여한 승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두 사적기의 기록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 주고 있다. 1709년의 번와공사와 1861년의 중수공사, 1885년의 단청공사 등도 「花山縣東嶺孔雀山水墮寺重覆蓋瓦記」(1709), 「孔雀山水墮寺重修記」(1861), 「江原道洪川縣東有孔雀山水墮寺法堂重創丹雘記文」(1885)[2] 등의 기문이 전한다.
한편, 1885년의 기문에서는, 창건은 오래전의 일이고 그 중간의 사정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당시(壬午, 1882년)의 중창이 5중창에 해당하며, 4중창은 66년 전인 지지난 정축(丁丑)년 즉, 1817년의 일이라고 적고 있다. 이 4중창의 기록은 『건봉사 급 건봉사 말사 사적』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다. 게다가 사적기에선 1811년에 '壽陁寺'로 개명하였다고 하였는데,[3] 1885년의 기문에서 여전히 '水墮寺'로 적고 있는 점도 어울리지 않는 점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수타사 대적광전은, 1636년에 지은 건물이며, 1709년, 1764년에 번와하였고, 1817년에 중창하고, 1882년에 중수하고, 1885년에 단청을 새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개 60년~100년 간격으로 보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이후로는 최근 조선총독부 문서를 통해 확인된 1932년 중수번와, 1945년 중수, 1982년 중수번와, 2006년 해체수리, 2009년 단청공사, 2012년 보수공사 등이 있었다.

3. 건축적 특징

2)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국가지정문화제 지정신청보고서』(홍천군, 2022. p.203에 인쇄본이 실려있다. 개명하였다고

3) 또 다른 자료에선 1878년(고종 15)에 개명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885년의 기사와는 배치된다. 상당 기간 두 표기법이 함께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수타사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수타사의 주불전으로서, 사찰의 중심축 선상 중앙에 있는 너른 마당을 앞에 두고 3단의 가공석 기단 위에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단층 팔작집으로, 일반적인 사찰의 주불전으로서는 작은 규모이고, 공포의 짜임과 배열도 주불전으로서는 작고 간소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찰 내에서의 위치와 건축적 완성도에 있어서는 높은 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6 수타사 대적광전 (2023.2.23. 촬영)

기단은 지형의 경사를 이용하여, 전면이 높고 후면이 낮은 경사지형 기단으로 만들었는데, 전면에는 폭이 넓고 높이가 낮은 지대석을 한 단 깔고 그 위에 평탄하게 가공한 기단석을 2층으로 줄을 맞추어 쌓았다. 측면과 후면엔 최상단의 기단석만 노출되어 있다. 정면의 중앙부에 기단으로 오르는 계단으로 장대석을 6단 쌓아 만들어 두었고, 기단 바깥의 좌우로도 중앙 계단과 나란한 5단의 돌계단을 두었다. 역시 장대석을 쌓아 만들었고, 소맷돌을 두지 않았다.

그 계단 우측 기단 앞에 특이한 형태의 석주(石柱)를 두었다. 기둥의 주신은 모를 죽인 사각 기둥 모양으로 다듬고 기둥머리엔 초각을 하여 장식하고 그 위에 반구형의 돌을 이고 있다. 또 돌기둥의 아래 부분도 다시 원형으로 가공한 좌대를 두고 있다. 주신의 전면에 'OO年陰六月十五日竣功'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사찰 측에서는 부처님께 공양수

를 바치는 청수대(淸水臺)라고 하고, 마침 그 모양이나 형태가 마치 불전에 무언가를 공양하는 듯하다고 생각되지만, 유사한 예를 보지 못하였고, 기록도 찾지 못하여 그 용도와 유래에 관해선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연기(年紀)가 지워진 것으로 보아서 일제 강점기에 만든 것이라는 세간의 설이 설득력이 있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서, 정면의 칸치수는 전후면 가운데 정칸이 3,300mm, 좌우 협칸이 2,190mm, 그리고 측면의 경우는 좌우 협칸이 2,240mm, 정칸이 2,160mm 이다. 건축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시공 오차 등을 고려하면, 영조척을 314mm 정도로 보았을 때 전후면의 정칸은 10자반, 그 외의 칸들은 모두 7자 정도로 계획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전후면의 정칸과 다른 칸의 비율은 3:2 의 비율로 계획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례는 기둥 위 포의 배열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전후면의 정칸에만 주간포를 2구 두고, 그 외의 칸에서는 모두 주간포를 1구씩 두었으므로, 모든 칸에서 포간 거리는 동일하게 된다.

기둥은 모두 두리기둥을 사용하였는데, 내부엔 전열의 내주 2본을 생략한 대신, 후열의 내주 2본은 고주로 처리하여서 후불벽을 달았다. 말하자면 감주만 있을 뿐 이주는 없는 정치법을 사용하였다. 크기는 바깥 둘레 기둥은 아래 부분의 지름이 389mm~448mm 사이의 크기를 갖는데, 전반적으로 모퉁이 기둥이 굵고(414~448mm), 변주들이 작다(389~424mm). 내부의 후열에 있는 내고주도 굵기는 비슷하여 각각 408mm와 412mm의 하부 지름을 갖는다. 한편, 기둥 상부는 하부에 비하여 지름의 크기가 32mm~51mm 정도 작게 가공하여 뚜렷한 민흘림을 두었다. 높이는 바깥 둘레 기둥이 약 3,260mm, 내고주가 4,720mm로, 내고주가 약 4자 반 정도 길다. 또, 전후면 정칸의 경우 기둥 사이의 중심거리와 기둥의 높이가 거의 같아 정방형의 비례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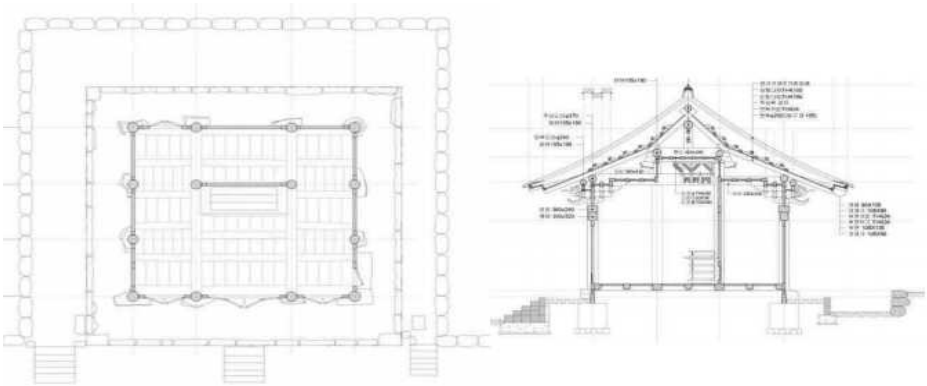


그림 7 수타사 대적광전 평면도와 단면도 (『신청보고서』에서 전재)

기둥 머리에 홈을 파서 창방을 짜넣고, 그 위에 평방을 사방으로 두른 다음 주두와 대접을 두고 외1출목 내2출목 공포를 짜올린 것은 사방 모두 같다. 그러나 전후면 주상포

에서는 3제공 위에서 대들보(전면)와 퇴보(후면)를 받치고, 양 측면 주상포는 충량(양측면의 전열)과 퇴보(양측면의 후열)를 받치고 있는 점이 모퉁이의 전각포나 주간포와 차이가 나는 점이다.
공포의 형식이 외1출목, 내2출목으로 되어 있는 점은 사찰의 주불전으로서는 다소 간소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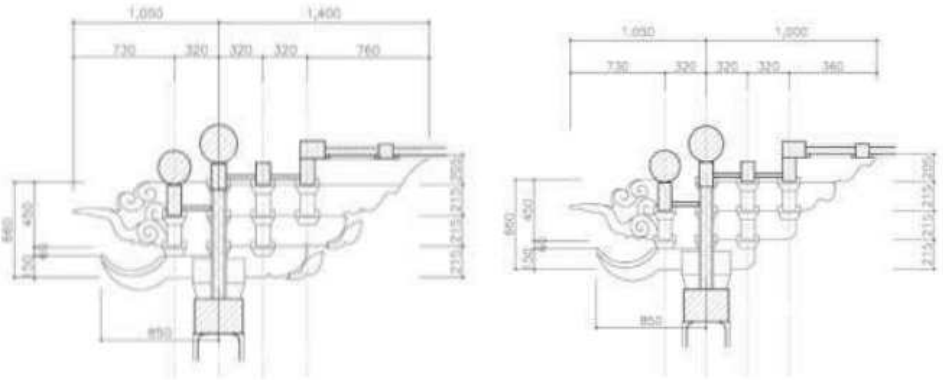


그림 8 수타사 대적광전의 주상포와 주간포 (『신청보고서』에서 전재, 주상포의 경우 내 3제공 위에서 바로 보를 받친다. 그러므로 도면에서 주상포 위에 내 4제공처럼 표기한 선은 오류이다. 아래 사진 참조)

그림 9 수타사 대적광전의 공포 내부 모습

그림 10 수타사 대적광전의 공포 외부 모습

위의 그림8.와 그림9. 및 10.에서 보듯, 외부 제공의 초각은 초제공은 앙서로 하고, 출목소로에서 행공 첨차와 짜이는 이제공은 윗면이 수평선을 갖는 익공형 초각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상포와 주간포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차이가 있어서, 주상포에서는 보를 받치는 3제공까지 각 제공의 내단에 모두 초각을 둔 것에 반해, 주간포의 경우는 초제공, 이제공은 교두형으로 간략히 마감하고, 삼제공과 사제공에서만 길게 뻗어 초각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제공의 하단을 소로의 위치에 맞추어 끊어서 교두형으로 가공한 것을, 길게 뻗어 초각을 둔 것보다 고식으로 보는데, 수타사 대적광전의 내부 제공에서는 이 두 가지의 형식이 섞여서 사용된 것이다. 게다가 주간포에서 보는 것처럼, 단지 넝쿨무늬의 초각을 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연봉을 덧붙여 장식한 것(주간포의 초제공과 이제공)과 내부 제공들이 한 몸으로 엮어 판재로 구성되어 살미처럼 가공한 것 등은 조선 중기의 것으로 보기엔 좀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흔히 고식 공포의 하한으로 여겨지는 조선 중기의 모습과 조선 후기의 모습이 뒤섞여 보이는 것은 제공의 외부 가공에서도 엿보인다. 즉, 초제공의 앙서는 조선 중기라고 보기엔 곡률이 강하게 휘어서 올라간다. 반면, 건물의 네 모퉁이 평방 뺄목 아래에 있는 창방의 뺄목 하단의 초각은, 별도의 장식적인 부재의 추가가 번잡함이 없이 일반 보아지와 같은 간략한 마감을 하여서 조선 중기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 주두와 대접도 폭보다 높이가 높은 비례를 갖는데, 이 역시 조선 중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공포 구성 부재의 세부 가공과 초각 등을 통해서 보는 시기적인 특징은 전체적으로 현재 건물의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1636년의 연기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제공의 일부 초각에 있어서는 1817년의 중창과 1882년의 중수 시에 부분적인 변경이 더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수타사 대적광전은 기본적인 기둥의 구성과 공포의 배열, 보와 대공 및 동자주, 도리와 서까래 등의 짜임으로 이루어진 상부 가구의 구성이 조선 후기의 다른 건물들에서 보기 힘든 독특함을 가지고 있어서, 건축적 가치가 높다. 상부의 지붕틀은 1고주 5량가의 가구법에 좇아서, 전후열의 둘레 기둥 위에 주심도리를 각각 두고, 중도리의 경우 전열의 중도리는 대들보 위에 있는 동자주 위에 두고, 후열의 중도리는 고주 위에 위치한다. 이때 대들보 위에 있는 동자주의 위치와 고주의 위치가 측면 벽에 있는 두 기둥과 나란한 자리에 놓여 있어서, 전열 기둥에서 동자주까지의 간격과 동자주에서 고주까지의 간격, 그리고 고주에서 후열 기둥까지의 간격이 같게 된다. 이 말은 곧 주심도리에서 중도리까지의 간격과 전후열의 두 중도리 사이의 간격이 같다는 의미이며, 상부 지붕틀이 3분변작법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3분 변작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주심도리와 중도리 사이에 걸리는 장연의 길이가 다른 건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다는 의미가 되는데, 측면에서도 전후면과 같이 긴

장연을 사용함으로써, 측면에 놓이는 장연의 뒷 뿌리가 종보에 바로 걸쳐져 있다. 즉, 외기도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기법은 다포계 팔작집에서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것으로, 이제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김제 금산사 대장전(1635), 서울 봉원사 대웅전(1748), 강릉 보현사 대웅전(1855) 등에 불과하다.[4] 선행 연구에서 양재영은 이와 같이 외기를 사용하지 않고 팔작지붕을 구성하는 방식을 17세기 초반의 특징적인 기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5]

실내 공간은 바닥에는 모두 우물마루를 깔았고, 천장면은 우물반자를 전체에 가설하였다. 다만 천장의 경우 3칸x3칸의 면적 중 한 가운데 놓인 1칸x1칸 부분은 다른 곳보다 높게 천장을 둔 감입(嵌入) 천장으로 하고, 그 자리에 닫집을 달아 아래에 있는 불단 위 불상을 덮고 있다. 즉, 주변부의 천장 반자는 대들보의 아래 3분의 1 높이에 맞추어 달았고, 중앙칸에서는 종보에 맞추어 달았다. 닫집은 凸자형으로 두 번 돌출한 전각모양으로 만들고 창방과 평방 아래에 기둥이 달대공처럼 내려와 연꽃 모양의 장식으로 마감하고, 내부 천장에는 용을 가공하여 달았고, 주변에 극락조와 주악비천상, 백련 등으로 장식하였으며, '적멸궁(寂滅宮)이라 편액하였다.

그림 11 수타사 대적광전의 실내 불벽과 천장

이외에도 수타사 대적광전에는 6개의 작은 종이 달린 긴 목재를 용 모양으로 가공한 독특한 종걸이가 실내공간의 향좌측 대들보 아래에 걸려있고, 지붕의 용마루 중앙에 두

4) 서효원,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의 가치와 진정성 논의', 『2020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2020. 홍천군. pp.43-60. 참조

5) 양재영, 『조선시대 다포식 건축의 가구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논, 2012. (서효원, 위의 글에서 재인용)

개의 청기와로 구운 수키와가 놓여 있는 등 특색있는 모습을 보인다.

창호는 전면에는 분합문을 주칸에 맞추어 채워 넣었는데, 정칸에는 사분합문, 양 협칸에는 이분합문을 두었다. 측면에서는 현재는 향우측면의 앞쪽 제1칸에 외여닫이문을 두었는데, 수장재의 구성을 보면 원래는 향좌측 벽의 마주보는 면에도 문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수타사 대적광전에서 특이한 점은 후면 벽에도 창이 있어서, 뒤에서 보았을 때 우측 협칸에 이분합 창을 두었다. 아래쪽엔 머름을 두어 이것이 문이 아니라 창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불전에서는 보기 힘든 이례적인 것으로 그 조성 시기와 목적에 대해서는 짐작하기 어렵다.

<종합의견>

홍천 수타사는 동종과 소조 사천왕상, 영산회상도와 승탑 등 많은 불교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 영서 지방을 대표하는 유서 깊은 고찰이며,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수타사의 주불전으로서, 사천왕을 모시는 봉황문 및 강당인 홍회루와 앞뒤로 나란히 일직선을 이루는 축선 상에 위치한다. 수타사 대적광전은 1636년에 지어지고, 1817년과 1882년에 중창, 중수되었으며, 근대 이후에도 여러 번의 보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타사 대적광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팔작집으로 사찰의 주불전으로서는 큰 규모라고 할 수 없지만, 주칸의 구성과 공포의 배열, 상부 지붕틀의 짜임 등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격식 높은 건축물이다. 즉, 3칸x3칸의 주망 가운데 전열의 내구 2본을 생략하여 실내의 불단 앞 공간을 넓혔고, 후열의 내주는 고주로 처리하여 1고주 5량가의 구성을 갖추었다. 보칸의 주칸을 같이 하고, 기둥열에 맞추어 도리를 둠으로써, 중도리 사이의 거리와 중도리에서 주심도리 사이의 거리를 맞춘 3분변작법을 사용하고, 측면에서도 장연을 종보에 걸침으로써, 지붕의 가구와 기둥의 배열이 완전히 합치되는 구성을 갖는다.

또한 외1출목, 내2출목의 간소한 공포형식과 공포구성부재의 짜임과 초각, 그리고 창방 뺄목의 초각, 기단의 가공, 민흘림이 강한 원기둥의 가공 등에서 17세기 건축의 시기적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공포부재의 가공과 초각에서 19세기의 중창 및 중수 시에 더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모습이 일부 엿보인다. 또한 근래에 행해진 보수공사로 인하여 많은 구성부재가 교체된 점도 확인된다.

하지만, 수타사 대적광전의 건축적 가치는 일차적으로 주칸의 구성과 공포의 배열, 공포의 기본적인 짜임과 상부 지붕틀의 구성 등 대목작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17세기의 시기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건축물에서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건축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수타사 대적광전은 보물로 승격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기둥과 보, 도리, 서까래 등의 목조 건축물의 기본 구성 요소 일체.
공포 부재와 기와, 기단 등의 부수 시설과 닫집, 장식, 종걸이 등의 실내 장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1.16.>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2.23	대상문화재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건축학과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은 17세기 중건 당시 모습이 잘 남아있는, 강원도 유일의 사찰 주불전으로 그 역사문화적 가치와 의미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홍천 수타사는 강원도 홍천군 수타사로 473(영귀미면)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공작산이 위치하고, 북쪽으로는 덕치천이 사찰을 크게 감싸며 흐르고 있어, 이곳은 예로부터 공작포란지지(孔雀抱卵之地)라 불리는 명당이었다.

공작산은 조선 세조의 비인 정희황후의 태를 봉안한 곳이며, 수타사에서는 세조가 편찬한 월인석보 17, 18권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수타사는 세조, 정희왕후와 관련이 깊은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 수타사 대적광전은 강원도 유형문화재(1971년 지정)로 지정되어 있다.

2. 연혁・유래 및 특징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수타사는 17세기에 중창되었다. 『홍천현동공작산수타사사적(洪川縣東孔雀山水墮寺事蹟)』(1688)에 의하면, 수타사의 주불전인 대적광전은 당시 법당으로 기록되어 있고 1636년 중창(重創)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대적광전의 중수, 수리 기록은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1928)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762년 대적광전 내 불상 개금, 1882년 대적광전 중수, 1885년 대적광전 단청, 1910년 대적광전 중수 기록이 있다. 또한, 1982년 대적광전 번와 공사 시, 중도리 장여 부분에서 확인된 중수기는 그 작성시기가 1945년으로 확인됨에 따라, 1945년 대적광전 중수 사실은 물론이고 그 이전인 1702년 대적광전 중수, 1932년 대적광전 중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상술한 1982년 번와공사에서 지붕재 상당수가 교체되었다. 서까래 4본, 선자연 7본, 부연 9본, 선자부연 24본 등이 교체되었고, 부연착고, 초매기, 부연개판, 이매기, 연함, 연목개판 등은 100% 교체되었다. 또한, 적심은 30% 보충되었고, 기와는 암키와 40%, 수키와 50%, 막새내림새 75%가 보충되었다.

2006년에는 기둥이하 주초석까지 해체공사가 진행되어, 다시 한 번 대대적인 목부재 교체가 이루어졌다. 동바리 1개소, 도리 13본, 제공 9본, 첨차 2본, 장여 7본, 장연 32본, 부연 98본, 사래 4본, 추녀 2본, 장귀틀 2본, 동귀틀 7본, 창호 5개소가 교체되었고, 단연, 평고대, 연함, 연목개판, 부연개판, 부연착고, 순각판, 합각은 100% 교체되었다. 기와는 90% 중와로 교체되어 암키와 4952매, 수키와 2046매, 암수막새 212매, 망와 10매, 착고 180매가 교체되었다. 이후 2009년 단청 보수를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1982년과 2006년 보수공사에서 상당수의 구부재가 신재로 교체되었는데, 이는 2017년 보물 승격 신청에서 탈락한 주된 이유로 추정된다. 비록 부재 교체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교체부재 대부분이 지붕재이며 주요 목가구 교체는 많지 않은 것

으로 볼 때, 수타사 대적광전의 구조와 양식에 큰 변화는 없으며 그 가치 또한 변함이 없다고 생각된다.

수타사 대적광전의 주요 건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적광전은 장대석 기단과 자연석 초석 위에 세워진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팔작지붕 건물이다. 구조는 1고주 5량가이며 평면은 후퇴형 평면이다. 이에 건물 내부 후면에는 고주를 사용하고, 전면에는 기둥없이 충량으로 상부 가구를 받치고 있다. 특히, 충량은 별도의 장식이 없어, 후대에 주로 나타나는 용모양의 충량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공포는 외1출목, 내2출목의 다포로 구성된다. 정칸에는 간포 2구, 협칸에는 간포 1구가 놓이는데, 각 포 간격은 일정하게 계획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수타사 대적광전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불전이나 전체적으로 짜임새있고 계획적인 구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다포를 사용하였음에도 내외출목수를 최소화한 것, 외기도리 없이 종보로 외기를 구성한 것, 중도리 위치를 잡을 때 삼분변작법을 사용한 것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수타사 대적광전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불전이나 전체적으로 짜임새있고 계획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17세기 중건 당시 모습이 잘 남아있는, 강원도 유일의 사찰 주불전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2.29.>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2.23	대상문화재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수타사는 수타사 남쪽으로 공작산이 자리하고 있고 북쪽으로 덕지천이 감싸며 흐르고 있다. 공작산은 조선시대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의 태(胎)를 봉안한 곳으로 주변의 경치가 빼어나 풍수적으로 공작포란지지(孔雀抱卵之地) 명당이라 전하고 있다.

수타(水墮)의 의미는 「花山縣東嶺孔雀山水墮寺重覆蓋瓦記(화산현동령공작산수타사중복개와기)」(1709)과 「수타사범종」(1670) 명문 그리고 「孔雀山水墮寺重修記(공작산수타사중수기)」(1861)을 통해 산세와 연못의 형세를 따라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수타사(水墮寺) 명칭은 1811년 "…朝鮮 純祖 十一年 辛未 水墮寺를 壽陀寺라 改稱하다…"라 하여 수타사(壽陀寺)로 변경하였고, 수타(水墮)라는 이름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 아미타불의 무량한 수명을 상징하는 수타(壽陀)로 사명을 변경한 것이 확인된다.

수타사는 일월사를 현 위치로 이건하여 개칭한 것이라고 한다. 수타사의 창건은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1928)과 『홍천현동공작산수타사사적』(1688)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홍천현동공작산수타사사적』은 정원선사(1627-1709)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 중종 경룡연간(707-709)에 원효가 우적산에 일월사를 창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통일신라시대에 일월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가 않다.

창건 이후의 기록은 거의 전해지지 않으며, 조선 선조 2년의 수타사 이건부터 중창과정이 남아 있다. 일월사는 고려말에 요승 신돈의 난(1365-1371)으로 피해를 입은 후 조선시대까지 쇠락하여 소실과 중창을 거듭하다가 1567-1572년경 호랑이가 출몰하여 현 위치인 공작산으로 이건하였다고 『홍천현동공작산수타사사적』에 전한다. 이건하여 수타사라 개칭하였으며 법당과 좌우의 당 및 정문만 있었다고 한다. 1569년(선조 2) 일월사를 공작산으로 이건하고 수타사라 개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타사 공작산에 있다"는 기록을 통해 1530년 이전에 이건 되었을 수도 있다.

『홍천현동공작산수타사사적』과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에 17세기 수타사의 중건과정이 나온다.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은 대적광전은 수미단의 묵서로 '숭□십일'로 기록되어 숭정11년(1638)이다. 또한, 대적광전 고주 보아지의 묵서에 1650년대 불사를 주도한 계일 이름 등으로 보아 1636년(인조 14) 공잠스님이 대적광전을 중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639년(인조 17)에는 계일스님이 백련당을 건립하였으며 1644년(인조 22)에는 학준스님이 선당을 중건하였다. 1647년(인조 25) 계철스님이 승당을 중건하며 주불전과 승선당이 갖추어졌고, 1650년(효종 원년) 도전이 정문을 중건하면서 주불전, 승당, 선방, 정문으로 구성된 사역 주요부가 완성되었다. 1658년 승해, 정명스님이 홍회루를 건립하면서 주불전과 승선당, 홍회루로 구성된 사동중정형 가람배치가 마련되었다.

1670년 정특, 대상, 천읍이 함께 대종을 주조하여 봉안하였고, 1674년(효종 15) 법륜이 봉황문을 창건하한 후 1676년 여담이 사천왕상을 조성하였다. 이후 1683년까지 신도, 천혜를 비롯하여 여민, 지해, 지행, 성민, 찬징, 선찰, 성념, 찬원, 상홀스님 등이 청련당, 향적전, 백련당, 송월당 등의 당우들을 차례로 중건하였다.

「수타사범종」의 명문도 17세기 수타사 중창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임진년의 병화로 폐허가 되어 그 뒤 오랫동안 버려졌다. 불법을 찾는 이가 숲과 넝쿨을 헤쳐서 와보고 한없이 탄식하곤 하였다. 숭정 병자년(1636)에 중창하였고, 순치 무술년(1658)이 되는 사이에 여러 전각을 다 지었다.(新羅之初, 蒼建也壬辰兵火, 空存餘基久矣, 尋眞之客採茅, 之類嘆愁無窮, 崇禎丙子之歲, 重蒼順治戊戌, 之間諸殿畢功,…)"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에도 대적광전은 1636년(인조 14) 공잠대사가 중건하고, 1764년 번와 보수, 1882년(고종 19)에 중수하였고, 1885년(고종 22) 단청 보수, 1910년(융희 4)에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박태순의 『동계집(東溪集)』에는 수타사에서 정원선사(淨源禪師)에게 준시가 실려 17세기 극후반에서 18세기 초반으로 보여 정원선사의 수타사사적을 기록하는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홍계영의 유람기에는 성난 눈초리의 사천왕, 주불전의 깍지를 끼고 앉은 불상, 그림으로 사방을 둘러친 벽 등1700년대 초반의 수타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주불상은 아미타불의 미타정인으로 추정되나 석가모니불의 선정인이나 비로자나불 등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영산회상도(1762년)와 지장시왕도(1776년)가 제작된 시기로 보아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 초반에 주불이 변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건봉사본말사적의 1811년 사명 변경은 의미있게 해석된다.

이인엽(1656-1710)의 『晦窩詩稿』, 김창흡(1653-1722)의 『三淵集』 등에 사찰에 대한 묘사는 없지만 수타사를 언급하고 있다. 1714년 수타사를 방문한 이하곤 그리고 안중관(1683-1752)은 배를 이용했음이 확인된다. 이외에 1727년에 한원진(1682-1751), 1742년에 김진상(1684-1751), 18세기 중반에 안석경(1781-1774)이 시를 남기고 있다.

18세기 말 정조대의 1799년 완성된 『梵宇攷』에서 "수타사, 공작산에 있다"고 기록한 것은 이 시점까지 큰 변화 없이 사찰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62~1866년까지 저술된 김정호의 『대동지지』에 "공작산 현 동쪽 25리에 있다. 수타사."라고 하여 1811년 이후 수타사[6]와 달리 사명이 수타사(水墮寺)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1872년 제작된 『1872년 지방지도』에 수타사의 암자인 옥수암이 나타나고 수타사(水墮寺)로 나타나고 있다. 『존재집』과 1912년 『朝鮮總督府官報』에 수타사(壽陀寺)로 기록되는데 이후 『

건봉사급건봉사본말사적』에 기록되고 있다. 이는 내부에서 수타사를 사용하고 외부의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수타사(壽陀寺)를 썼을 가능성이 추정된다.

2. 연혁·유래 및 특징

임진왜란으로 인해 수타사는 사역 전체가 소실되었다. 사적기를 보면 17세기 수타사 중창은 사역 안쪽부터 밖으로, 중요 전각부터 부차적인 전각으로 공사를 추진하였다. 수타사의 주불전인 대적광전은 법당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공잠(工岑) 스님 주도로 1636년(인조 14)에 중창하였다. 이어서 1639(인조 17)에는 백련당을 계일(戒一)스님이 중창하였으며, 1644년(인조 22)에는 학준(學俊)스님이 선당을 중건, 1647년(인조 25)에는 계철(戒哲)스님이 승당을 중건하였다. 여기에 1650년(효종 원년)에는 도전(道詮)스님이 정문을 중건함으로써 주불전과 승당, 선당, 정문으로 구성된 사역 주요부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1658년 승해(勝海)· 정명(定明) 두 스님이 홍회루를 건립하면서 주불전과 승·선당, 홍회루로 구성된 사동중정형 가람배치가 완성되었다. 이후에도 수타사의 불사는 계속되어 1670년 정특(正特), 대상(大尙), 천읍(天揖)이 대종을 주조하여 봉안하였고, 1674년(현종 15)에는 법륜(法倫)이 봉황문을 짓고 2년 뒤에 여담(汝湛)이 사천왕상을 봉안함으로서 산문(山門)까지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1683년까지 청련당, 향적전, 백련당, 송월당 등의 당우들을 차례로 중건하였고, 이들 대부분 지금까지 전해지면서 사세를 유지하고 있다.

『건봉사급건봉사본말사적』에 의하면 대적광전은 1636년 공잠대사가 사찰을 중창하면서 중건한 이후 1764년 번와보수, 1882년에 중수, 1885년 단청보수, 1910년에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885년 중수 당시를 기록한 기문인 「江原道洪川縣東有孔雀山水墮寺法堂重創丹雘記文(1885)」에는 1817년(순조 17)에 중수가 있었음이 추가로 확인된다. 그 후 1982년 보수 공사 당시 종도리 장여 하부에서 발견된 중수기(1945)를 통해서 1932년과 1945년에 대적광 전을 중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해방 이후 수리기록은 약 5차례인데, 모두 건물의 노후에 따른 부분적인 보수였으며, 현재까지 크게 변형된 부분없이 예전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대적광전의 기단은 정면에 잘 다듬은 장대석을 세벌대로 쌓았는데, 아래쪽은 넓은 면석을 쌓고 그 위에 바른층쌓기로 두 벌의 장대석을 더 올려놓았으며, 그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았다. 일반적으로 장대석은 길이가 길고 높이가 비교적 작은 것을 말하는데, 수타사 대적광전의 기단은 길이가 길지 않으면서도 높이도 높은 것을 사용하고 있어 건물의 전체적인 의장적 통일성과 균형을 고려하였다.

기둥은 모두 원형이며, 민흘림을 두었다. 기둥머리에 창방과 평방을 사방에 돌 리고, 창방뺄목은 조선 중기의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각(草刻)을 꾸몄으며, 평방뺄목은

창방뺄목보다 약간 길게 하여 끝을 수직으로 잘랐다.

평방 위에 놓여있는 공포는 다포로, 어칸은 간포가 2조, 협칸은 1조씩 짜여 있으며 공포간격이 일정하게 구성되어 있다. 외1출목, 내2출목으로 전체적으로 간결하면서 장식이 가미되지 않은 조선 중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주두는 폭에 비하여 굽이 약간 높은 비례를 이루고 있으며 초제공의 쇠서는 조선 초기 양식에서 보는 강직한 맛은 없으나, 완만한 곡선의 앙서를 갖추었다. 특히 쇠서의 위치가 밑으로 처져있는 점은 조선 말 쇠서가 수평으로 뻗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 건물의 공포가 조선시대 중기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내부의 살미첨차는 판재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의 살미첨차와는 다르게 주심포와 귀포의 내부 살미의 끝에만 연봉을 장식하고 있다. 또한 내출목도리가 없는 점이 주목된다.

가구는 1고주 5량가로 사방에 평주를 세우고 내부 후면에 두 개의 고주를 세웠으며, 대들보와 툇보가 고주에 꽂혀 양측면을 연결하고 있다. 고주가 없는 전면의 경우 측면의 기둥과 대들보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충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충량에 별도의 장식은 하지 않았다. 고주에 결구되는 대들보와 툇보의 아래로는 초각이 되어 있는 보아지를 두어 양 보를 받치고 있으며, 대들보 위로는 동자주 형태의 대공이 놓이고 그 위로 종보를 얹은 다음 다시 그 위에 대공을 올린 후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천장은 우물천장이며 불전이 있는 곳은 한층 높게 꾸몄는데, 그 방법은 가운데 높은 천장은 종보 위치에 천장을 가설하고 주변의 낮은 곳은 대들보에 천장을 가설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내부는 전체 바닥을 우물마루로 하고 고주 사이에 불벽(佛壁)을 치고, 그 앞에 수미단을 놓고 1구의 불상(비로나자불좌상)을 모시고, 그 뒤 불벽에는 영산회상도를 후불탱화로 두었다. 불상의 위로 설치한 닫집에는 용과 봉황 등이 섬세하게 가공되어 있고, 좌우에는 비천상이 표현되어 있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기와는 중와를 사용하였고, 용마루 한가운데 수키와 2개는 청기와를 올려놓았다. 또 정면의 좌우측 수막새 위에는 연봉을 올려 장식하고 있다.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수타사의 역사는 「홍천현동공작산수타사사적(洪川縣東孔雀山水墮寺事蹟)」 (1688)과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 (1928)이 남아 있어 그 내력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대적광전은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 을 통해 1636년 공잠대사가 중건하였고, 이후 1764년 번와보수, 1882년에 중수, 1885년 단청보수, 1910년에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강원도홍천현동유공작산수타사법당중창단확기문(1885)」에는 1817년(순조 17)에 중수가 있었음이 추가로 확인된다. 이 후 1982년 보수 공사 당시 종도리 장여 하

부에서 발견된 중수기(1945)를 통해서 1932년과 1945년에 대적광전을 중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대적광전은 많은 문헌을 통해 창건과 이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또한, 해방 이후 수리기록은 약 5차례인데, 모두 건물의 노후에 따른 부분적인 보수였으며, 현재까지 크게 변형된 부분없이 예전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점에서 건축물의 진정성 또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수타사에 건립된 소조사천왕상은 전국적으로 17개의 사찰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17세기 전후에 조성되었다. 17세기에 대규모 소조사천왕상이 조성되어 있는 사찰들은 당시 중요한 곳으로 취급되어 대규모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소조사천왕상이 전해지고 있는 사찰들의 주불전들은 새롭게 건축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를 받고 있어 역사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수타사는 대적광전-홍회루-봉황문을 일축으로 구성하고 있어 하나의 통일된 건축 계획상에 각 건물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적광전 일곽은 배치, 공간 구성 등 17세기 중창 당시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대적광전이 있다는 점에서도 건축적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수타사 대적광전은 공포규격을 하나의 단위로 이용하여 평면ㆍ구조ㆍ의장을 계획함으로써 퇴칸의 정면과 측면 주간포 위치와 개수가 일치하는 점, 이주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평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간결하면서도 비교적 장식없는 외1출목 내2출목 공포를 구성하고 있는 점, 3분변작법을 이용해 장연이 주심에 중심을 둠으로써 구조적 안정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조선 중기 이전의 건축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유사 시기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 건축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특히 외1출목 다포를 완성도 높게 구현한 주불전 건물로서 17세기라는 특정 가능한 시기에 강원도의 산지 사찰에서는 보기 드문 건축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건물이다.

이처럼, 수타사 대적광전은 강원도 일원에서 가장 오래된 주불전으로 건립 및 보수기록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비록 근래의 보수에서 일부 부재가 교체된 점이 있으나 주요 구조부는 대부분 17세기 중건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17세기 건축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

안건번호 건축 2024-02-002

2. 울주 천전리 각석 지정명칭 변경

가. 제안사항

「울주 천전리 각석」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명칭 변경 신청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보 지정 당시 기하학적인 문양과 각종 인물·동물상이 표현된 암각화보다는 제작시기와 내용이 명확한 신라시대 명문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음. 이후 암각화에 대한 다양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선사시대 그림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어 암각화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함.

- 현재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함께 등재 핵심 요소이므로 명칭 일원화 필요.
- 2023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0차 회의(2023.10.19.) : 보류(지정명칭안 재검토)
- 동 사항은 2023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1차 회의(2023.11.16.)에서 조건부가결(지정명칭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변경한다.)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3.12.29～'24.01.27)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울주 천전리 각석

○ 소 재 지 :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 210-2

○ 지 정 일 : 1973. 05. 04. / 국보 지정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명칭 변경

현행 명칭	변경 신청 명칭
울주 천전리 각석 (蔚州 川前里 刻石)	울주 천전리 암각화 (蔚州 川前里 岩刻畵)

(4) 검토결과 : 조건부가결

○ 지정명칭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변경한다.

라. 현지조사 의견('23.08.08.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 암반에 수많은 동물상의 암각화와 신라사 연구에 중요한 금석문이 동시에 새겨진 유적이고 명문상 서석곡(書石谷)이라 부른 기록이 있으므로 ▸**'울주 천전리 암각화 및 서석곡'**, ▸**'울주 천전리 암각화 및 명문'** 제안함.

○ (○○○) 문자와 문양, 다양한 그림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암각화'로 명칭변경 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각석'은 통상 이동 가능한 석재의 명문을 칭하는 것으로 이해됨.

○ (○○○) 현재의 명칭은 선사시대의 암각화보다 신라시대의 명문만을 지칭하는 의미로만 인식될 수 있으므로, ▸**'울주 천전리 암각화와 신라 명문'**, ▸**'울주 천전리 암각화 및 신라 각자'** 등을 제안함.

마. 추가 의견('23.11.16. / 문화재위원 ○○○)

○ 기왕에 지정되어 있는 반구대 암각화의 공식명칭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인 점을 고려할 때 "울주 천전리 각석" 역시 같은 순서로 배열해 명칭을 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이는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라는 주제하에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이 동시에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어 명칭 역시 통일성을 꾀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천전리 각석 역시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예에 따라 **행정구역상 현재 지명(울주 대곡리) + 현지에서 전하는 지역명칭(반구대) + 암각화**로 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현재 지정 명칭인

“울주 천전리 각석”은 현재의 지명과 석각에서 확인되는 옛 지명을 조합해 변경하는 것이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라는 전제와 유적이 명칭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울주 천전리 각석”의 명칭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예에 따라 **울주 천전리 서석곡 암각화(蔚州 川前里 書石谷岩刻畵)**로 바꾸는 안도 추가로 제시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의 견 서

□ **조사일시** : 2023. 08. 08.(화)

□ **조사내용** : 울주 천전리 각석 문화재 명칭변경

□ **조사의견**

천전리 각석은 1970년 12월 24일, 동국대학교 박물관 불적조사단에 의해 발견된 이래 1973년 5월 국보 제147호로 지정되었다. 발견 당시에는 “울주 천전리 書石”이라 불리워졌지만 국보 지정시 “蔚州 川前里 刻石”으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전리 각석에는 동물상 52점, 인물 24명, 기하문 81점, 문자 127자 등 모두 625점의 다양한 물상이 새겨 있다. 이중 동물상에는 고래와 사슴, 말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인근에 자리한 반구대 암각화와 일맥상통하는 면면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단부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신라 법흥왕대인 525년과 539년에 왕경에서 귀족, 승려 화랑 등이 이곳을 찾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525년의 명문에 의하면 이곳의 지명을 법흥왕의 동생이 사부지갈문왕이 “書石谷”이라 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천전리 각석에는 인근의 반구대 암각화와 동일한 문화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동물상과 더불어 신라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금석문이 공존하고 있다. 때문에 유적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자연스레 금석문에 모아졌고, 이 같은 경향은 “울주 천전리 각석”으로 지정 명칭이 정해지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각석”을 하나의 유적으로 묶어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라는 명칭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의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울주 천전리 각석”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즉, 유적의 명칭을 “울주 천전리 암각화”로 변경해 기왕의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통일성을 이루고자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23일에 개최된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명칭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를 원안가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7월 11일에 개최된 “국보 울주 천전리 각석 명칭 변경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어 기왕의 “울주 천전리 각석”으로 불리우던 유적의 명칭을 “울주 천전리 암각화”로 변경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刻石이라는 명칭은 “글자나 무늬 따위를 돌에 새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비석과 같이 다듬은 석재에 글씨 등을 새긴 유물을 부르는 명칭이다. 하지만, 이 유적은 너비 9.5m. 높이 2.7m의 암반에 수많은 동물상의 암각화와 신라사 연구에 중요한 금석문이 동시에 새겨진 유적이다. 따라서 이 유적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된 “각석”이란 용어는 부적절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현재 사용되는 유적의 명칭은 발견 당시부터 암각화보다는 명문의 내용 판독과 이에 대한 연구에 집중된 당시의 연구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울주 천전리 각석이라는 지정 명칭의 변경되어야 한다는 현지 및 세미나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세미나에서 결론으로 도출한 “울주 천전리 암각화”로의 변경은 유적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이 유적은 암각화와 금석문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유적이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신석기대 후기로부터 신라시대를 아우르는 넓은 시간적인 영역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초기에 유적의 명칭을 정하면서 법흥왕대의 각석에 주목했던 석학들의 의견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유적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유적이 지닌 전체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유적의 상황을 볼 때 변경되는 지정 명칭에는 암각화와 금석문을 포함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유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암각화”라는 명칭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울주 천전리 암각화 + 금석문”**의 내용으로 정리된 명칭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금석문을 표현함에 있어 다음의 두 가지 안이 대두된다.

첫째, 암각화와 함께 새겨진 명문에,
“乙巳年(525년, 법흥왕 12년) (前略) 옛날부터 이름이 없던 골짜기였는데, 좋은 돌을 얻어 쓸 수 있게 되니 이름 짓기를 書石谷이라 하시고 글자를 적게하셨다. (後略)”
라는 내용에서 암각화와 더불어 암각화가 새겨져 있고, 이어 글자를 새겼던 암반이 있는 이 계곡을 서석곡이라 命名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암각화와 금석문이 새겨진 유적이 존재하는 계곡의 지명을 혼합한 **“울주 천전리 암각화 및 書石谷”**

둘째, 암각화와 더불어 金石이나 器皿 따위에 새긴 글을 지칭하는 銘文이라는 용어를 조합해 **“울주 천전리 암각화 및 銘文”**

기왕에 불리우던 “울주 천전리 각석”이라는 지정명칭은 유적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정명칭의 변경을 요망하는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적이 지닌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상기의 두 가지 안을 제안한다.

문화재위원 ○○○ (인)

의 견 서

□ **조사일시** : 2023. 08. 08.(화)

□ **조사내용** : 울주 천전리 각석 문화재 명칭변경

□ **조사의견**

울주 '천전리 각석'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에 있는 선사시대 바위그림유적이며 삼국시대에 새긴 명문도 함께 있다. 태화강의 지류인 대곡천의 중간 지점에 있고, 그림이 새겨진 바위는 연한 갈색 판암석으로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기 좋은 무른 암질이다. 바위면이 떨어져나간 쪽이 많아 뚜렷한 모습을 알 수 없는 그림도 있다.

'천전리 각석'은 우리나라 최초로 학계에 보고된 암각화 유적으로 발견 당시에는 명문에 비해 암각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국보 지정 시 명문이 평가 가치의 중심이 되면서 각석으로 칭하게 되었다. '천전리 각석' 이후 약 30여 곳에 새로운 암각화 유적이 확인되었고, 천전리 암각화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유적의 유형상 명칭을 암각화로 칭하고 있다. 이에 울주군은 유사 문화재는 대부분 암각화로 칭하고 있는 반면 최초로 보고된 '천전리 각석'만 암각화가 아닌 각석으로 불리고 있어 유적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 중 하나로서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 중인 '대곡천 암각화'를 구성하는 중요 유적이므로 시대적 요구와 세계유산 등재 상의 이유로 '천전리 암각화'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

현지에서 검토한 바 1973년 지정 당시 '원명'과 '추명' 등 명문에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여 문화재 명칭을 정했으나, 이후 기하학적 문양, 동물상, 인물상 등이 확인되면서 총 625개의 문양 중 문자가 127개, 그림이나 형태를 알 수 없는 것이 307개로 문자와 문양, 다양한 그림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암각화로 명칭변경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유사한 문화재들이 모두 암각화로 칭해지고 있어 문화재 명칭의 통일성을 위해서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천전리 각석'의 '각석'은 통상 이동 가능한 석재의 명문을 칭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일반인이 바위에 새겨진 그림과 글씨 모두가 표현되어 있다고 이해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는 면도 있어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하였다.

다만 단순히 '천전리 암각화'라 변경할 경우 암각화가 그림과 글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의 명칭이라 하나 그림 위주로 설정된 개념의 명칭이므로, 문화재의 원래 가치로 평가되는 명문에 대한 내용이 표현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의 검토는 필요하다 사료된다.

문화재전문위원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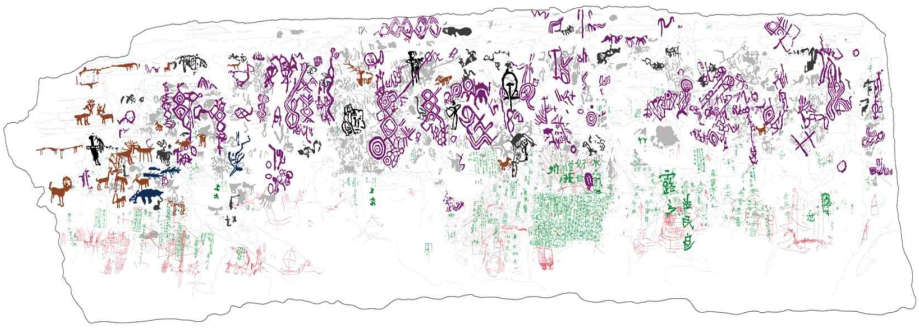
의 견 서

□ **조사일시** : 2023. 08. 08.(화)

□ **조사내용** : 울주 천전리 각석 문화재 명칭변경

□ **조사의견**

울주 천전리 각석(蔚州 川前里 刻石)'은 태화강 물줄기인 대곡천의 중류에 있는 암벽에 각종 도형과 그림, 명문이 가득 새겨진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아 1973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이 문화유산은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같은 암벽에 선사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암각화와 더불어 신라시대 6세기경의 사회상을 담고 있는 명문이 함께 새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동일한 암벽에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인 신라시대까지의 사회상을 함께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울주 천전리 각석'은 여러 시대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전해주고 보여주는, 多時代 複合 文化遺産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울주 천전리 각석 ' 전경과 도면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해 온 '울주 천전리 각석'이라는 명칭에서 '각석(刻石)'은 '석각(石刻)'과 비슷한 의미로, 어떤 내용이나 사실 등을 알리기 위하여 돌의 표면에 문자나 기호 등을 새긴 것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현재의 명칭은 선사시대의 암각화보다 신라시대의 명문만을 지칭하는 듯한 한정적인 의미로만 인식될 수도 있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문화유산의 경우 청동기시대의 암각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문화유산 형성의 시발점도 선사시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사시대의 암각화가 명칭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의미가 부여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울주 천전리 암각화'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더불어 역사적, 학술적 중요성과 가치가 높고, 그러한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등 앞으로의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문화유산 명칭은 그 문화유산이 담고 있는 역사적, 학술적 의미와 가치 등을 포함하고, 그러한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대적인 요구나 변화, 활용이라는 측면만을 고려하여 명칭을 정하거나, 기존의 명칭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요구나 변화, 활용은 우리 시대의 사조이고, 시간이 흘러 상황이 바뀌면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유산 명칭은 우리 시대의 시각과 기준이 아닌 그것이 만들어진 그 시대의 특성이나, 만든 사람의 의도 또는 의미가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문화유산 그 자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울주 천전리 각석'은 선사시대의 암각화와 더불어 신라시대 새겨진 명문도 그것을 새긴 시기와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선사시대 암각화와 신라시대 명문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울주 천전리 각석'보다는 '울주 천전리 암각화와 신라 명문' 또는 '울주 천전리 암각화 및 신라 각자' 등 선사시대 암각화와 신라시대 명문의 중요성과 가치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명칭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울주 천전리 각석'이라는 기존 명칭은 한계가 있으므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새로운 명칭은 신라시대 명문과 함께 선사시대의 암각화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전문위원 ○○○ (인)

안건번호 건축 2024-02-003

3.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등 4건 금석문 탁본

가. 제안사항

충남 부여군 소재 국보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등 4건의 금석문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탁본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제35조(허가사항)에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등 4건의 문화재에 대한 탁본 허가신청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 본 사업은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주관하고 있음.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등 4건(붙임참조)

(3) 신청내용 : <금석문 탁본>

○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등 국가지정문화재 금석문 4건에 대한 탁본 허가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금석문 탁본 조사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예산 : 사억원(문화재청 민간경상보조사업)
  - ‘24년 연간 50건 탁본 계획, 아카이브 계획수립, 교육 등

○ 사업내용 : 선정된 대상유물 현장조사, 탁본, 보고서 발간 등

- 채탁 : 습식탁본
- 재료 : 한지, 먹, 먹방망이, 옷솔
- 과정 : 사전조사 및 유물 세척 → 종이 붙이기 → 먹물 올리기 → 종이 떼어 내기 → 채탁 후 뒷정리
- 조사단

<table>
<tr><th colspan="6">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 구성 인원 및 업무 내용</th></tr>
<tr><td colspan="2" rowspan="2">총 괄</td><td colspan="2">불교중앙박물관 관장</td><td>○ ○ ○</td><td>총 괄</td></tr>
<tr><td colspan="2">불교중앙박물관 학예사무국장</td><td>○ ○ ○</td><td>관 리</td></tr>
<tr><td colspan="2" rowspan="3">실 무</td><td colspan="2">불교중앙박물관 차장</td><td>○ ○ ○</td><td>실무 관리</td></tr>
<tr><td colspan="2">불교중앙박물관 팀장</td><td>○ ○ ○</td><td>실무 운영</td></tr>
<tr><td colspan="2">불교중앙박물관 행정관</td><td>○ ○ ○</td><td>담 당</td></tr>
<tr><th colspan="6">금석문 탁본 조사 구성 인원 및 업무 내용</th></tr>
<tr><td rowspan="5">진행</td><td>총괄</td><td colspan="2">책임연구원</td><td>○ ○ ○</td><td>탁본 진행 총괄</td></tr>
<tr><td>조사</td><td colspan="2">연구원</td><td>4인</td><td>현장 조사 및 관계기관 교류, 탁본 정리 및 탁본 섭외, 현장 조사 및 탁본 보조, 보고서 작성</td></tr>
<tr><td rowspan="3">채탁</td><td>A팀</td><td>연구원</td><td>1팀</td><td rowspan="3">탁본 및 탁본 현장 사진촬영</td></tr>
<tr><td>B팀</td><td>연구원</td><td>1팀</td></tr>
<tr><td>C팀</td><td>연구원</td><td>1팀</td></tr>
</table>

- 자문위원단
  - ○ ○ ○ (○ ○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고려시대사 전공)
  - ○ ○ ○ (○○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문화재위원, 보존과학 석조문화재분석 전공)
  - ○ ○ ○ (문화재위원, 서지학 전공)
  - ○ ○ ○ (○ ○ ○ ○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명예교수, 불교사 전공)

○ 2024년도 사업대상 현황

문화재명	기존 탁본 유무	탁본 사유	국립문화재연구소 정기조사 결과 (비신 중심으로 발췌)
1.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	- 660년 백제를 공격한 당의 소정방이 정림사지 오층석탑 초층 탑신에 자신의 공적을 기록한 명문. - 당나라의 문장가 하수량賀遂亮이 비문을 짓고, 권회소權懷素가 글씨를 씀. 삼국시대 7세기에 기록된 1차 사료로서 한국고대사 연구 성과에 활용될 수 있음. - 현재 보호각 없이 야외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풍화가 진행되는 상태임. 기존 탁본은 풍화된 글씨에 대한 먹 두드림이 균일하지 않아 글씨가 판독되지 않은 문장이 많음. 글씨의 보존을 위한 양질의 탁본 확보가 필요함.	● **2015년 국가지정건조물문화재(국보, 보물) 정기조사** - 초층 탑신 좌측면의 탑신석이 바깥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음. 풍화·마모·박리 등으로 글자의 형태를 알 수 없음. ● **2018년 국가지정건조물문화재(국보, 보물) 정기조사** - 초층 탑신의 면석과 우주 사이의 이격이 일부 있음. 지속적인 관찰 필요함. ● **2021년 국가지정건조물문화재(국보, 보물) 정기조사** - 탑신석 부재 간 이격이 발생하여 이격부로 적심석이 노출됨. 표면 전체에 변색과 박락 진행됨. - 2015년, 2018년 정기조사 결과와 큰 차이 없음.
2.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 탑비	○	- 고려 광종 대의 고승, 법인국사 탄문法印國師坦文의 행장을 기록한 비. - 고려 문신 김정언金廷彦이 비문을 짓고, 한윤韓允이 글씨를 씀. 구양순체歐陽詢體 해서楷書의 자형과 획을 충실히 반영한 명필 글씨가 새겨져 있음. 따라서 본 비석은 고려시대 서예사 연구 상에 중요한 작품임. - 기존 탁본은 먹 두드림이 균열하지 않고, 한지 이음 부분의 선이 두드러져 정확한 판독이 어려움. 본 사업을 통한 양질의 탁본 확보가 필요함.	● **2010년 국가지정건조물문화재(국보, 보물) 정기조사** - 비신 정면 우측 하단에 박리가 있음. 비신 지의류에 의한 변색 확인됨. ● **2016년 국가지정건조물문화재(국보, 보물) 정기조사** - 귀부와 비신이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나 상태 양호함. ● **2020년 국가지정건조물문화재(국보, 보물) 정기조사** - 비신 정면 우측 하부 표면에 박락이 있음. 2016년 서산시에서 보존처리 실시함.

문화재명	기존 탁본 유무	탁본 사유	국립문화재연구소 정기조사 결과 (비신 중심으로 발췌)
3.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	- 고려 현종 대 홍경사弘慶寺의 창건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 - 고려 문신 최충崔沖이 비문을 짓고, 백현례白玄禮가 글씨를 씀. 당대의 저명한 학자인 최충의 문장을 담고 있으며, 고려 전기의 서풍 흐름을 충실히 따른 백현례의 유일한 글씨가 새겨져 있음. 따라서 본 비석은 고려 전기 문장과 서예 연구에 중요한 작품임. - 기존 탁본은 비신 상단의 전액과 비문의 필선 확보에 미비한 부분이 확인되어 정확한 판독이 어려움. 본 사업을 통한 양질의 탁본 확보가 필요함.	● **2003년 국립문화재연구원 석조문화재 현황 진단조사** - 비신 상부 풍화 및 산화물에 의한 변색 있음. 균열부위 보강 및 변색부분 세척 완료함. ● **2010년 국가지정건조물문화재(국보, 보물) 정기조사** - 비신 우측면에 균열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태 양호함. ● **2018년 국가지정건조물문화재(국보, 보물) 정기조사** - 비신 상부 모서리 부분 멸실이 있음. 상부 표면 일부 변색이 있으나 금석문의 보존 상태 양호함.
4. 부여 보광사지 대보광 선사비	○	- 고려 후기의 고승 원명국사 충감圓明國師冲鑑의 행장과 부여 보광사普光寺의 중창을 기록한 비. - 원나라의 문신 위소危素가 글을 짓고, 양지楊池와 주백기周伯琦가 비문과 전액을 각각 씀. - 비신 뒷면에 조선 후기 보광사의 주지 능일能一의 추기가 새겨져 있음. 원나라의 저명한 문장가의 문장과 서예가의 글씨가 담긴 비석이며, 조선 후기의 기록까지 담고 있어 보광사의 역사를 조명하는 1차 사료로서 중요한 작품임. - 기존 탁본은 비신 상단의 전액의 필선을 파악하기 어렵고 비신 균열 부위의 글씨를 판독하기 어려움. 본 사업을 통한 새로운 탁본 확보가 필요함.	● **2003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석조문화재 현황 진단조사** - 비신을 좌대에 시멘트로 접착, 균열 및 박락 부위를 에폭시로 접착. 보존대책으로 현상 유지 필요함. ● **2010년 국가지정건조물문화재(국보, 보물) 정기조사** - 비신 정면, 배면 균열 및 충진접착이 있음. 관리상태 양호한 편이나 일부 균열 부위와 탈락 부위 보강 필요함. ● **2019년 국가지정건조물문화재(국보, 보물) 정기조사** - 비신 정면, 배면에 다수의 미세균열이 있음. 배면 좌측 상부 및 하부 일부에 파손 및 균열 확인됨. 전반적인 상태 양호함.

라. 참고사항(기존 사업추진 현황)

연도	지정사항	문화재명	지역/소재지	기탁본여부
2023	보물	의왕 청계사 동종 명문	경기/의왕	○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명문	경기/안양	○
	보물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경기/안성	○
	보물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경기/용인	○
	보물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	경기/여주	○
	보물	수원 창성사지 진각국사탑비	경기/수원	○
	사적	서울 삼전도비	서울/송파	○
2022	보물	남양주 봉선사 동종 명문	경기/남양주	○
	보물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경기/고양	○
	보물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비	경기/양평	○
2021	국보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경남/창녕	○
	보물	양산 통도사 동종	경남/양산	○
	보물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	경남/양산	○
	보물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명문	경남/함안	○
	보물	창녕 인양사 조성비	경남/창녕	○
	보물	사천 흥사리 매향비	경남/사천	○
	보물	합천 해인사 홍제암 사명대사 석장비	경남/합천	○
	보물	통영 안정사 동종	경남/통영	○
	보물	거창 고견사 동종	경남/거창	○
2020	국보	장흥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명문	전남/장흥	○
	보물	김제 금산사 혜덕왕사탑비	전북/김제	○
	보물	남원 실상사 수철화상탑비	전북/남원	○
	보물	담양 개선사지 석등 명문	전남/담양	○
	보물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비	전남/장흥	○
	보물	부안 내소사 동종 명문	전북/부안	○
	보물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전남/강진	○
	보물	해남 명량대첩비	전남/해남	○
	보물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탑비	전남/강진	○
	보물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전남/여수	○
	보물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전남/구례	○
	보물	여수 타루비	전남/여수	○
	보물	곡성 태안사 동종 명문	전남/곡성	○
	보물	영암 도갑사 도선국사・수미선사비	전남/영암	○
	보물	강진 백련사 사적비	전남/강진	○
	보물	담양 용흥사 동종 명문	전남/담양	○
	보물	고흥 능가사 동종 명문	전남/고흥	○
	보물	순천 선암사 동종 명문	전남/순천	○
	보물	순천 선암사 동종 명문	전남/순천	○

연도	지정사항	문화재명	지역/소재지	기탁본여부
2019	국보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명문	충북/청주	○
	국보	단양 신라 적성비	충북/단양	○
	국보	충주 고구려비	충북/충주	○
	보물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충북/충주	○
	보물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충북/충주	○
	보물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명문	충북/제천	○
	보물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	충북/영동	○
	보물	보은 법주사 동종 명문	충북/보은	○
2018	국보	평창 상원사 동종 명문	강원/평창	○
	국보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명문	강원/철원	○
	보물	동해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 명문	강원/동해	○
	보물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강원/강릉	○
	보물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강원/영월	○
	보물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비	강원/원주	○
2017	보물	대구 무술명 오작비	대구/북구	○
2016	보물	영천 청제비, 청제중립비	경북/영천	○(청제비)
2015	국보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충남/보령	○
	보물	경주 석빙고비	경북/경주	○
	보물	예천 명봉사 경청선원 자적선사 능운탑비	경북/예천	○
2014	보물	경주 황남동 효자 손시양 정려비	경북/경주	○
	보물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	경북/칠곡	○
	보물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경북/포항	○
	보물	청도 운문사 원응국사비	경북/청도	○

※ (2014~2022) 경북, 대구,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광주, 경남, 부산, 울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소재 금석문에 대한 탁본을 추진한 결과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를 비롯한 국보 8건과 양산 통도사 동종을 비롯한 보물 46건을 합쳐 총 54건의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을 완료하였음.

※ (2023) 서울, 경기 일대 소재 금석문을 대상으로 탁본을 추진한 결과 의왕 청계사 동종,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 수원 창성사지 진각국사탑비, 서울 삼전도비 총 7건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탁본을 완료하였음.

7건 모두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며, 대상 유물에 대한 보존 방안에 유념하여 사전·사후 안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였음.

마.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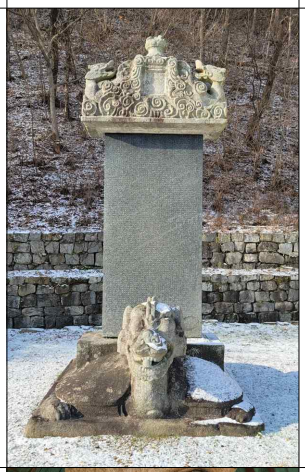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2024년도 금석문 탁본 조사(건축) 대상 목록

번호	대상유물	지정번호	유물명	연대	크기(cm)	지역
1		국보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扶餘定林寺址 五層石塔]	7세기	탑 높이 830	충남 부여
2		보물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 [瑞山普願寺址 法印國師塔碑]	978년 (경종 3)	높이 240 너비 116 두께 29	충남 서산
3		국보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天安奉先弘慶寺 碣記碑]	1026년 (현종 17)	높이 189 너비 97 두께 22	충남 천안
4		보물	부여 보광사지 대보광선사비 [扶餘普光寺址 大普光禪師碑]	1358년 (공민왕 7)	높이 213 너비 115 두께 23	충남 부여

안건번호 건축 2024-02-004

4.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이전계획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보물「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의 “국가지정문화재 이전계획”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제35조(허가사항)에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보물「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국가지정문화재 이전계획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중앙로 7(가흥동)

○ 지 정 일 : 1963. 01. 21.

○ 연　　혁

- 1917년 : 영주군 남산들 제방공사 중 발견, 영주 초등학교 앞 도로 중앙에 위치
- 1963년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 1988년 : 현 위치로 이전(구 도립도서관, 영주세무서 근처)
- 1990년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고시
- 2010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안 고시

(3) 신청내용 : 소재지 이전

	현 위치	이전검토 위치
장소	구 도립도서관 야외	**소수박물관 야외**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 7(가흥동)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80**

○ 이전사유

- (보존) 현재 위치한 도심지에서 벗어나 훼손 및 재이전 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여 영구보존 필요
- (활용) 영주시 운영 박물관으로써, 개방된 공간에 국가유산을 이전하여 인식 및 활용도 제고
- (기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 최소화

○ 향후계획

- 소수박물관 경내 이전위치에 잔디 및 조경수 등을 식재하고, 소수박물관 소장 불상 등을 활용하여 유적공원 정비

라. 의결사항

○ 부결

- 이전 계획 보완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안건번호 건축 2024-02-005

5. 서울 인조별서 유기비 주변 아파트 단지 건립(재심의)

가. 제안사항

서울 은평구 소재 보물 「서울 인조별서 유기비」 주변에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8m 초과”, 제5구역 “최고높이 32m 초과” 개별검토에 해당됨.

※ ‘24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4.01.18)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서울 인조별서 유기비

○ 소 재 지 : 서울 은평구 역촌동 8-12번지

○ 지 정 일 : 2006. 02. 17.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은평구 역촌동 13-4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4m

○ 사업내용 : 아파트 단지 건립

구분	'24년 제1차 위원회 (보류)	금 회 ('24.2.7. 계획 보완)	비고
대지면적	33,871㎡	(좌동)	
건축면적/ 연면적	8,434㎡ / 263,983㎡	8,434㎡ / 261,784㎡	연면적 2,199㎡ 감소
건폐율/ 용적률	24.9% / 499.8%	24.9% / 496.59%	용적률 3.18% 감소
최고높이 (역보지역 내)	22층m(68.4m) *역보지역 내 3개동 -114동: 22층(남서향) -113동: 20층(남향) -112동: 22층(남서향)	22층m(68.4m) *역보지역 내 3개동 -114동: 22층(남서향) -113동: 18층(남동향) -112동: 18층(남동향)	113동 4개 층 감소 112동 2개 층 감소
세대수	1,766세대	1,750세대	16세대 감소
건물규모	지하 4층~지상 35층, 15개동 및 부대시설	(좌동)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좌동)	
용도	공공주택,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좌동)	

라. 현지조사의견('24.02.02.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 부지는 인조별서 유기비의 배면에 해당되는 위치이며 가까운 거리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계획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배치와 높이 등을 조정하여 경관 저해 요소를 줄이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안건번호 건축 2024-02-006

6.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 주변 건축물 양성화(2차)

가. 제안사항

전남 광양시 소재 보물「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주변의 건축물 양성화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개별검토”에 해당됨.

※ 2023년 6월 자체검토 회의결과(2023.06.26.) : 보류

- 현지조사 후 문화재위원회 검토

※ 2023년 문화재위원회 제7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07.20) : 보류

- 건물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 보완 후 재검토

o 현지조사 의견(‘23.07.11. / 문화재위원 ○○○) - 사역은 중흥산성 내의 경사지에 위치하고 상부에 저수지가 인접하여 현재의 사역 밖으로는 더 이상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건도 어려운 점이 있음. - 문화재 주변에 건립한 명부전, 사천왕문, 종각 등은 전통사찰의 일반적인 배치수법을 보여주며, 기존 건물들과의 관계와 규모를 검토해 봤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됨. - 요사채와 해우소 등 나머지 건축물은 문화재 중심영역에서 벗어난 경사지 아랫부분에 위치하여 문화재의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됨. 또한, 석축과 담장, 건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전통적인 경관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옛 종각 터에 있는 초석과 기단을 이전하여 외부공간을 정비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23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09.2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90-1번지

○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90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건축물 양성화

- 변경사항 : 9동 양성화 신청 → 8동 양성화 신청, 1동 해체·발굴

구분		건립 연도	건축 면적	규모	양식	건립당시 보호구역 지정여부	'23년 9월 심의(부결)	금회
1	대웅전	1988년	108.90㎡	5칸×3칸	익공, 팔작지붕	지정	양성화	양성화
2	천불전	1991년	99㎡	5칸×3칸	익공, 팔작지붕	지정	양성화	해체· 발굴
3	설법전	1988년	148.50㎡	5칸×3칸	익공, 팔작지붕	비지정	양성화	양성화
4	산신각	1988년	33㎡	5칸×3칸	익공, 맞배지붕	지정	양성화	양성화
5	칠성각	1988년	39.60㎡	2칸×1칸	익공, 맞배지붕	비지정	양성화	양성화
6	명부전	1997년	85.60㎡	5칸×3칸	주심포, 팔작지붕	비지정	양성화	양성화
7	요사채	2000년	95.29㎡	5칸×3칸	익공, 팔작지붕	비지정	양성화	양성화
8	수각	2002년	7.85㎡	1칸×1칸	굴도리, 맞배지붕	비지정	양성화	양성화
9	문간채	2003년	26.50㎡	3칸×2칸	소로수장, 팔작지붕	비지정	양성화	양성화

※ 사역 내 현상변경 허가 건축물 : 4동 / 화장실(2002년), 후원(2002년), 사천왕문(2009년), 범종각(2012년)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안건번호 건축 2024-02-007

7.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3차)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단독주택 신축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검토”에 해당됨.

※ ’23년 6월 제1차 현상변경 자체검토 회의결과(2023.06.09.)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10.19.)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24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4.01.18.)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경주 마동 삼층석탑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마동 101-2, 101-3

○ 지 정 일 : 1987. 03. 09.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마동 106-20, 104-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58m(제1구역)

○ 사업내용

구분	2023년 제10차 위원회(부결)	2024년 제1차 위원회(부결)	2024년 제2차 위원회(금회신청)
대지면적(㎡)	674㎡	674㎡	674㎡
건축면적/연면적(㎡)	124.1㎡ / 98.94㎡	74.38㎡ / 98.94㎡	74.38㎡ / 98.94㎡
건폐율/용적률(%)	18.41% / 14.68%	11.04% / 14.68%	11.04% / 14.68%
건물규모	1개동 지상2층	1개동 지상2층	1개동 지상2층
최고높이	7.9m	7.2m	7.2m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토공	터파기, 절토0.65m	터파기, 절토0.65m	터파기, 절토0.65m
L형 옹벽	길이14m, 높이1m	길이14m, 높이1m	길이14m, 높이1m

※ 금회 신청사항은 '24년 1차 신청내용과 동일하며, 건물형태만 변경됨.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안건번호 건축 2024-02-008

8.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3차, 이ㅇㅇ)

가. 제안사항

강원 양양군 소재 보물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22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2.11.17.)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08.17.)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 소 재 지 : 강원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100-2

○ 지 정 일 : 1966. 02 .28.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94-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260m 내외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3차)

- 대지면적 : 438㎡

- 규모 : 1동 / 지상1층
- 건축 및 연면적 : 83.84㎡
- 최고높이 : 4.8m
- 재질 및 구조 : 일반철골구조
- 색상 : 베이지색
- **조경 식재 추가**

라. 의결사항

○ 보류

- 허용기준 조정 검토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보류 11명

안건번호 건축 2024-02-009

9.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2차, 전ㅇㅇ)

가. 제안사항

강원 양양군 소재 보물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08.17.)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 소 재 지 : 강원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100-2

○ 지 정 일 : 1966. 02 .28.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94-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260m 내외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577㎡

- 규모 : 1동 / 지상1층

- 건축 및 연면적 : 102.0㎡ / 99.40㎡

- 최고높이 : 4.4m
- 재질 및 구조 : 경량철골구조
- 색상 : 진회색 지붕 / 베이지색 벽체
- **조경 식재 추가**

라. 의결사항

○ 보류

- 허용기준 조정 검토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보류 11명

안건번호 건축 2024-02-010

10.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2차, 강ㅇㅇ)

가. 제안사항

강원 양양군 소재 보물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08.17.)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 소 재 지 : 강원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100-2

○ 지 정 일 : 1966. 02 .28.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94-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260m 내외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682㎡

- 규모 : 1동 / 지상1층

- 건축 및 연면적 : 99.19㎡

- 최고높이 : 4.8m
- 재질 및 구조 : 경량철골구조
- 색상 : 진회색 지붕 / 베이지색 벽체
- **조경 식재 추가**

라. 의결사항

○ 보류

- 허용기준 조정 검토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보류 11명

안건번호 건축 2024-02-011

11.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2차, 전ㅇㅇ)

가. 제안사항

강원 양양군 소재 보물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08.17.)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 소 재 지 : 강원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100-2

○ 지 정 일 : 1966. 02 .28.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94-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260m 내외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420㎡

- 규모 : 1동 / 지상1층

- 건축 및 연면적 : 83.84㎡

- 최고높이 : 4.0m
- 재질 및 구조 : 일반철골구조
- 색상 : 베이지색
- **조경 식재 추가**

라. 의결사항

○ 보류

- 허용기준 조정 검토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보류 11명

안건번호 건축 2024-02-012

12. 정읍 피향정 주변 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

가. 제안사항

전북 정읍시 소재 보물 「정읍 피향정」주변 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과 관련하여 신청된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정읍 피향정

○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102-2

○ 지 정 일 : 1963. 01. 21.

(3)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89-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13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

- 신축내용

구분	기존 건물	신축 건물	증감
건축면적	46.8㎡	138㎡	91.2㎡ 증가
높이	4.78m	6.2m	1.42m 증가

라. 현지조사의견(2024.02.08. /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피향정으로부터 약 130m 이격된 위치에 노후된 주택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역사문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벽체와 지붕은 무채색 계열로 마감토록 하여 문화유산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안건번호 건축 2024-02-013

13. 정읍 피향정 주변 일반음식점 철거 후 신축

가. 제안사항

전북 정읍시 소재 보물「정읍 피향정」주변 일반음식점 철거 후 신축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일반음식점 철거 후 신축과 관련하여 신청된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정읍 피향정

○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102-2

○ 지 정 일 : 1963. 01. 21.

(3)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103-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74m

○ 사업내용 : 일반음식점 철거 후 신축

- 철거 후 신축 사유 : 노후화되고 손님의 안전을 위해

- 신축내용

구분	기존 건물	신축 건물	증감
대지면적	86.0㎡		-
건축면적	77.5㎡	68.31㎡	9.19㎡ 감소
높이	4.78m	4.5m	0.28m 감소

라. 현지조사의견(2024.02.08. /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피향정은 현재 앞쪽으로 넓은 연못이 조성되어 있으나, 본래 피향정 주변에는 상연지와 하연지로 불리는 연못이 있었으며, 상연지는 일제강점기에 메워지고 현재 하연지만 남아 있다고 전함. 그러나 1872년 지방지도를 보면 피향정의 양쪽으로 방형의 연못이 각각 존재했던 것으로 그려져 있어 현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본 건은 피향정으로부터 약 74m 이격된 위치에 철근콘크리트로 된 노후된 음식점 건물을 철거하고, 조립식 경량 철골조 건물로 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건물은 태인면의 중심 가로에 면한 건물로서 주변지역이 상가와 음식점으로 밀집되어 있고, 기존 건물이 노후되어 개축이 불가피함.

ㅇ 다만, 벽체와 지붕은 무채색 계열로 마감토록 하여, 문화유산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ㅇ 향후, 장기적으로 피향정과 연지에 대한 학술조사와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본래의 역사문화경관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안건번호 건축 2024-02-014

14.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자동차 관련시설 등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논산시 소재 보물「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주변에 자동차 관련시설 등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자동차 관련시설 등 신축에 따른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 “평지붕 기준 최고높이 8m 초과”에 해당됨.
- 공통사항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초과”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108번지 일원

○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260번지 등 4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185m

○ 사업내용 : 자동차 관련시설 등 신축

- 건축면적 : 539.20㎡
- 연면적 : 883.90㎡
- 건폐율/용적율 : 10.80% / 17.70%

- 최고높이 : 주1동 8.9m, 주2동 7.0m
-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세차장)
- 정화조 : 시 오수라인에 연결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안건번호 건축 2024-02-015

15. 남한산성 수어장대, 숭렬전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안)

가. 제안사항

경기 광주시 소재 보물 「남한산성 수어장대」, 「남한산성 숭렬전」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면적 조정(안) 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남한산성 수어장대」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문화재청 고시 제2021-173호), 보물 「남한산성 숭렬전」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문화재청 고시 제2022-144호)의 내용이 현재의 지적공부 기재사항과 상이하여 이를 현행화하고자 조정(정정)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23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1차 회의(2023.11.16.)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3. 12. 15.～'24. 1. 14.)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가. 보물 「남한산성 수어장대」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1

○ 지 정 일 : 2021. 12. 27.

나. 보물 「남한산성 숭렬전」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7

○ 지 정 일 : 2022. 11 .25.

(3) 신청내용 : 「남한산성 수어장대」, 「남한산성 숭렬전」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안(붙임 참조)

문화유산명	분류	현행	조정(안)	비고
남한산성 수어장대	필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1 등 8필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1 등 9필지	증 1필지
	지정 면적	8,379.0㎡	8,360.84㎡	감 18.16㎡
남한산성 숭렬전	필지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717 등 10필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7 등 11필지	증 1필지
	지정 면적	6,131㎡	5,975.12㎡	감 156㎡

○ 조정사유 : 경기도의 지적측량·분할 결과에 따라, 실제 지적과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의 불일치 사항 현행화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 남한산성 수어장대, 남한산성 숭렬전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1부.

[붙임] 「남한산성 수어장대」, 「남한산성 숭렬전」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 지번 조서 】

1. 문화재구역

가. 보물 「남한산성 수어장대」

【당초】 *문화재청 고시 제2021-173호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1	사	2,380.0	167.1	국유 (문화재청)	
계			**2,380.0**	**167.1**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1	사	2,417.06	190.73	국유 (문화재청)	
계			**2,417.06**	**190.73**		

나. 보물 「남한산성 숭렬전」

【당초】 *문화재청 고시 제2022-144호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717	사	2,013.0	48.3	국유 (재정경제원)	
계			**2,013.0**	**48.3**		
【변경(안)】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7	사	2,018.51	43.53	국유 (재정경제원)	
계			**2,018.51**	**43.53**		

2. 보호구역

가. 보물 「남한산성 수어장대」

【당초】 *문화재청 고시 제2021-173호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1	사	2,380.0	2,212.9	국유(문화재청)	
2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2	사	248.0	248.0	국유(문화재청)	
3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3	임	2,780.0	2,780.0	경기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4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3	임	108,298.0	2,550.0	경기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5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6	임	298.0	298.0	국유(산림청)	
6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7	임	298.0	52.0	국유(문화재청)	
7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36	도	4,464.0	71.0	국유 (국토교통부)	
계			**118,766.0**	**8,211.90**		

【변경(안)】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1	사	2,417.06	2,226.34	국유(문화재청)	
2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2	사	250.06	250.06	국유(문화재청)	
3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3	사	2,750.18	2,750.17	경기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4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4	임	2,310.90	2,310.90	경기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5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6	임	273.11	273.11	국유(산림청)	
6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7	임	369.29	52.09	국유(문화재청)	
7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36	도	4,048.52	71.77	국유 (국토교통부)	
8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5	임	235.67	235.67	국유(산림청)	
계			**12,654.79**	**8,170.11**		

나. 보물 「남한산성 숭렬전」

【당초】 *문화재청 고시 제2022-144호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716	전	1,526.0	1.0	국유 (재정경제원)	
2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717	사	2,013.0	1,964.7	국유 (재정경제원)	
3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718-1	전	1,498.0	557.0	광주시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4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731-1	전	1,236.0	352.0	ㅇㅇㅇ	
5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731-2	전	89.0	89.0	국유 (재정경제원)	
6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1220	구	5,134.0	149.0	국유(문교부) 외 1인	
7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8	임	83,372.0	1,914.0	경기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8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9	임	793.0	793.0	국유(산림청)	
9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20	임	496.0	263.0	국유(산림청)	
계			**96,157.0**	**6,0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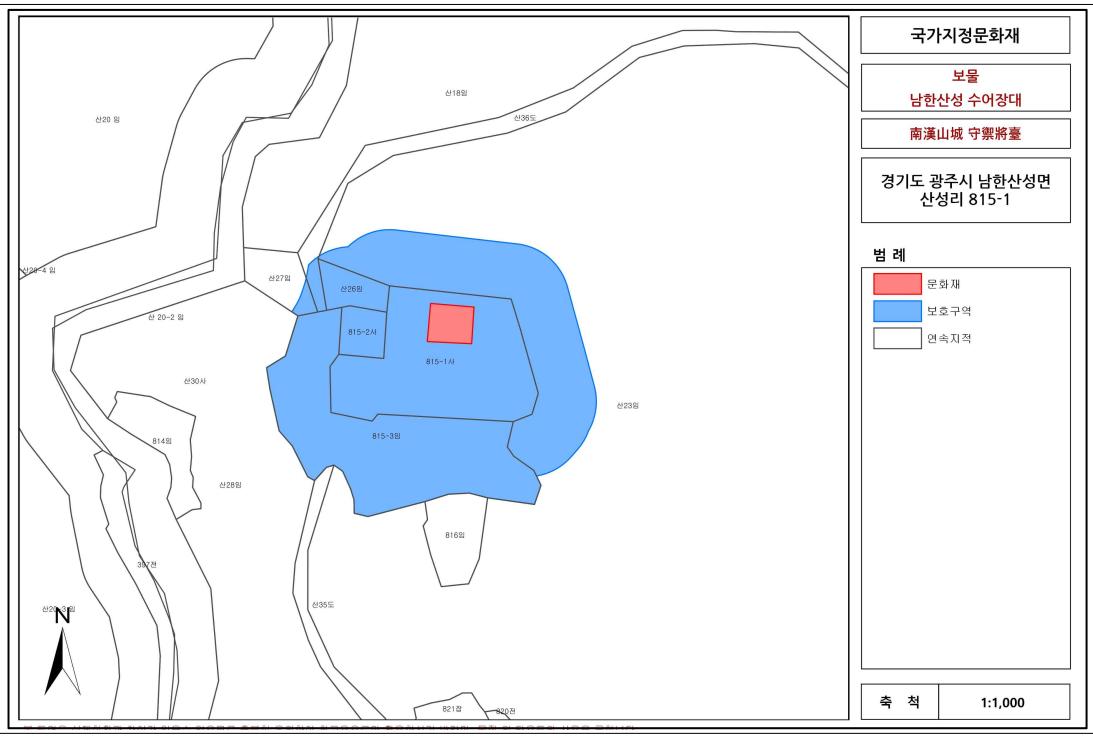
【변경(안)】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6	전	1,596.79	287.94	국유 (재정경제원)	
2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7	사	2,018.51	1,974.98	국유 (재정경제원)	
3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8-1	전	1,479.97	558.79	광주시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4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31-1	전	862.50	4.18	ㅇㅇㅇ	
5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31-2	전	102.47	102.47	국유 (재정경제원)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6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1220	구	5,198.71	140.36	국유 (기획재정부)	
7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7-2	임	1,667.81	1,667.81	경기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8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9	임	636.26	636.26	국유 (산림청)	
9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0	임	305.64	212.02	국유 (산림청)	
10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31-3	전	346.78	346.78	경기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계			**14,215.44**	**5,931.59**		

【 지형도면 】

1. 보물 「남한산성 수어장대」

【당초】 *문화재청 고시 제2021-17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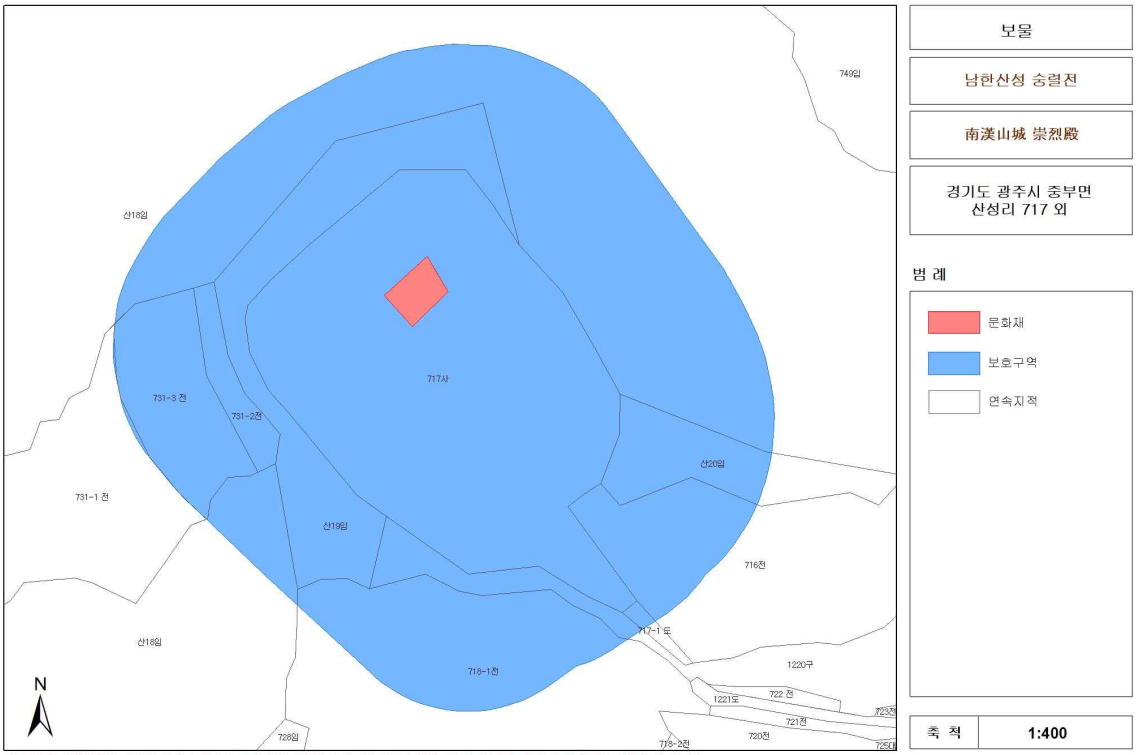


【변경(안)】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다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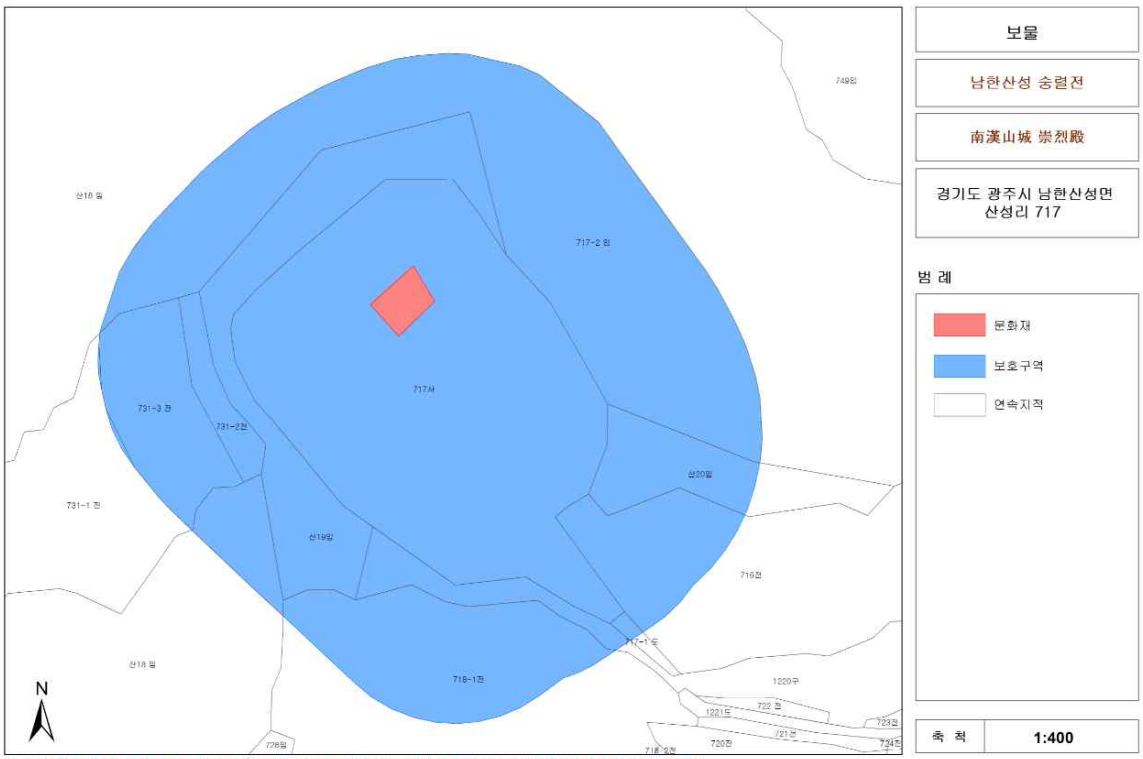
2. 보물 「남한산성 숭렬전」

【당초】 *문화재청 고시 제2022-144호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변경(안)】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4-02-016

16.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주변 선원 건립 기본설계(안) 검토(3차)

가. 제안사항

‘23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물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주변 선원 건립 기본설계(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3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물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주변 선원 건립 기본설계(안)에 대해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11.16.)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24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4.01.18.)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벽송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 소 재 지 : 경남 함양군 마천면 광점길 27-59

○ 지 정 일 : 1968. 12. 19.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함양군 마천면 광점길 27-5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60m 이내

○ 변경내용 : 선원 건립

구 분	1차(23.11.16) / 부결	2차(24.01.18) / 부결	금회 신청안
평면	“ ㅡ ”자형 배치	“ ㄱ ”자형 배치	2동 배치
칸수	정면7칸, 측면2칸 =총 7칸	정면5칸, 측면4칸 =총 7칸	1동=정면4칸, 측면2칸 2동=정면3칸, 측면2칸
면적	152.46㎡(약 46.12평)	152.47㎡(약 46.12평)	1동=87.13㎡ (약 26.36평) 2동=65.35㎡ (약 19.77평)
지붕형태	팔작지붕	팔작지붕+회첨	1동=팔작지붕 2동=맞배지붕
처마	겹처마(연목+부연)	겹처마(연목+부연)	겹처마(연목+부연)
건물높이	지반에서 +6.85m	지반에서 +6.85m	1동=+8.78m 2동=+6.85m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설계(2023년)

- 사업예산 : 총 100백만원(국비 70백만원, 지방비 30백만원)

라. 현지조사 의견(2023.09.05.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삼층석탑이 있는 벽송사 중심사역의 상단으로 신청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물 배치를 조정하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4-02-017

17. 중점관리 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23년 결과 및 ‘24년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15년부터 중점관리 대상 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23년 모니터링 결과(26건) 및 ‘24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1) 중점관리 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근거 및 추진 현황

○ ‘14년 중점관리 대상 문화재 선정

※ 중점관리 대상 문화재 선정 및 모니터링 등에 관한 규정(청 훈령 제336호(2014.12.))

○ ‘15년 국립문화재연구원 중점관리 대상 문화재 36건 대상 모니터링 시작

※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청 훈령 제585호, (2022.01.))

○ ‘15～‘24년 국립문화재연구원 중점관리 대상 모니터링 추진현황

- 점검분야 : 구조안전, 보존과학, 생물피해 등

(단위: 건)

년도	중점관리 대상						조치결과		등급						
	국보	보물	사적	총계	계속	신규	점검 지속	점검 종료	A	B	C	D	E	F	기타
2015	18	15	4	37	-	-	31	6	-	8	27	-	2	-	-
2016	17	14	3	34	31	3	31	3	2	5	22	2	2	1	-
2017	17	14	3	34	31	3	29	5	3	11	13	1	6	-	-
2018	17	12	3	32	29	3	25	7	-	12	14	1	5	-	-
2019	19	12	2	33	25	8	26	7	1	7	9	4	9	-	3
2020	18	12	1	31	26	5	26	5	1	5	14	3	6	-	2
2021	17	12	1	30	26	4	26	4	-	5	15	2	5	-	3
2022	15	10	1	26	26	0	24	2	-	-	17	1	8	-	-
2023	13	12	1	26	24	2	25	1	-	-	20	1	2	-	3
2024	14	12	0	26	25	1									

* 등급: A(양호), B(경미보수), C(주의관찰), D(정밀진단), E(수리), F(즉시조치)
* 기타등급: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조치가 진행 중인 대상

다. 주요내용(보고사항)

(1) 2023년 모니터링 결과

○ 대상 : 26건(국보 13건, 보물 12건, 사적 1건)

○ 결과 : 주의관찰(C) 20건, 정밀진단(D) 1건, 수리(E) 2건, 기타 3건

- 전체 모니터링 결과(26건) / 붙임 1
- 주요 점검 결과(6건)

문화재명(지정)	주요 모니터링 결과	등급	비고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국보)	○ '23년 수리 예정(예산 반영) - 지붕부 하중 불균형, 공포부 부재 파손, 서측 고주 부후 등에 대한 해체보수 필요 *** '24년 해체보수 설계 및 덧집 설치 예정**	기타	'15년 모니터링 시작 '19~'20년 경미보수(B) 의견 '21~'22년 수리(E) 의견
창덕궁 돈화문 (보물)	○ '23년 수리 예정(예산 반영) - 상층 좌우측 지붕 추녀마루 양성 균열과 추녀 및 외기 인접 당골막이 탈락 지속 - 협칸 대들보 처짐 관찰, 상층 좌우측 처마부 흘러내림 진행 판단, 해체보수 필요 *** '24년 해체보수 예정**	기타	'18년 모니터링 시작 '19년 주의관찰(C) 의견 '20~'22년 수리(E) 의견
대구 파계사 원통전 (보물)	○ '23년 수리 예정(예산 반영) - 좌우 측면 지붕 처짐으로 인한 공포부 변형 및 파손, 연목 부후, 기와 흘러내림 등 손상에 대한 지붕부 해체보수 필요 *** '24년 기둥이상 해체보수 예정**	기타	'20년 긴급보수(내림마루) '21년 모니터링 시작 '21~'22년 수리(E) 의견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국보)	○ '23년 보존처리 필요 - 기단 경사부(시멘트몰탈) 파손, 면석 풍화, 생물 피해 등에 관한 정밀조사 및 보존처리 필요 - 최상단 옥개부 파손 보존처리 필요 *** '24년 기단부 보존 처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예정**	수리 (E)	'15년 모니터링 시작 '19년 주의관찰(C) 의견 '20년 정밀진단(D) 의견 '21~'22년 수리(E) 의견
경주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 (보물)	○ '23년 보존처리 필요 - 암반 균열 및 절리, 생물피해에 대한 보존 상태 정밀조사를 통한 보존처리 필요 *** '23년 정밀 모니터링(경주시 수행) 결과에 따라 '24년에 수리 예산 신청 예정**	수리 (E)	'15년 모니터링 시작 '19년 정밀진단(D) 의견 '20~'22년 수리(E) 의견
달성 현풍 석빙고 (보물)	○ '23년 정밀진단 필요 - 석재 균열 및 파손, 표면 손상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한 보존환경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4년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 중**	정밀 진단 (D)	'15년 모니터링 시작 '19~'22년 정밀진단(D) 의견

(2) 2024년 모니터링 계획

○ 점검대상 : 26건(국보 14건, 보물 12건) / 붙임 2

- 지속점검 25건, 점검종료 1건, 신규 1건

○ 변동사항(1건 종료 / 1건 신규)

구분	문화재명(지정)	사유
종료 대상 (1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사적)	○ '15~'23년 모니터링 / 주의관찰(C) ○ 종료 사유 -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에 따라 사적은 대상에서 제외 ○ 향후 계획 - 상시계측은 지속 예정
신규 (1건)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보물)	○ 신규 사유 - '23년 12월 비신 파손(비신 중앙 및 우측 중단 수평균열 발생) ○ 향후 계획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계획

- 문화유산 보존현황에 따라 연간 1~4회 현장점검 실시

- 후속 조치 완료 대상은 현장점검 및 검토를 통해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유관부서, 관리단체 등 통보

- 2023년 결과 유관부서 및 관리단체 통보 : 2024년 4월(예정)

-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발간 : 2024년 6월(예정)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접수 11명

붙임 : 1. 2023년 중점관리 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결과 1부

2. 2024년 중점관리 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계획 1부. 끝.

[붙 임 1]

2023년도 중점관리 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결과

연번	지정	문화재명	점검결과	향후계획	조치현황
1	국보	서울 숭례문	주의관찰(C)	지속점검	
2	국보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기타	지속점검	'24년 해체보수 설계 및 덧집 설치 예정
3	국보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수리(E)	지속점검	'24년 기단부 보존 처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예정
4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의관찰(C)	지속점검	'23년 북서측 추녀부 보수 완료
5	국보	경주 불국사 다보탑	주의관찰(C)	지속점검	
6	국보	경주 석굴암 석굴	주의관찰(C)	지속점검	
7	국보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주의관찰(C)	지속점검	
8	국보	경주 첨성대	주의관찰(C)	지속점검	
9	국보	김제 금산사 미륵전	주의관찰(C)	지속점검	
10	국보	울주 천전리 각석	주의관찰(C)	지속점검	'24년 보존환경 영향분석 수행
11	국보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의관찰(C)	지속점검	
12	국보	경복궁 근정전	주의관찰(C)	지속점검	
13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주의관찰(C)	지속점검	
14	보물	서울 흥인지문	주의관찰(C)	지속점검	
15	보물	경주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	수리(E)	지속점검	'23년 정밀 모니터링 수행(경주시)
16	보물	경주 석빙고	주의관찰(C)	지속점검	
17	보물	밀양 영남루	주의관찰(C)	지속점검	
18	보물	구례 화엄사 대웅전	주의관찰(C)	지속점검	
19	보물	창덕궁 돈화문	기타	지속점검	'24년 해체보수 예정
20	보물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주의관찰(C)	지속점검	'23년 보존 처리 수행(경주시)
21	보물	달성 현풍 석빙고	정밀진단(D)	지속점검	'24년 정밀안전진단 추진 중
22	보물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주의관찰(C)	지속점검	
23	보물	대구 파계사 원통전	기타	지속점검	'24년 기둥 이상 해체보수 예정
24	보물	창경궁 관천대	주의관찰(C)	지속점검	
25	보물	경주 불국사 대웅전	주의관찰(C)	지속점검	'24년 정밀안전진단 예정
26	사적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주의관찰(C)	점검종료	'23년 건설기술연구원 모니터링 '24년 경주시 계측기 이관 예정
계	총 26건 (국보 13건, 보물 12건, 사적 1건)		C등급 : 20건 D등급 : 1건 E등급 : 2건 기 타 : 3건	지속 : 25건 종료 : 1건	-

[붙 임 2]

2024년도 중점관리 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계획

연번	지정	대상 문화재	횟수	점검 분야			비고
				구조	보존	생물	
1	국보	서울 숭례문	2회	●			
2	국보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1회	●			하반기 가설덧집 설치(예정)
3	국보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2회	●			
4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2회	●			
5	국보	경주 불국사 다보탑	1회		●		
6	국보	경주 석굴암 석굴	2회	●	●		진동계측(1회/년)
7	국보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1회		●		
8	국보	경주 첨성대	2회	●	●		상시계측, 초분광 분석
9	국보	김제 금산사 미륵전	2회	●		●	흰개미 탐지견 조사 병행
10	국보	울주 천전리 각석	1회		●		
11	국보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1회		●		
12	국보	경복궁 근정전	2회	●		●	상시계측, 흰개미 탐지견 조사 병행
13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1회	●			상시계측
14	국보	밀양 영남루	4회	●		●	흰개미 탐지견 조사 병행
15	보물	서울 흥인지문	2회	●			상시계측/진동(2회/년)
16	보물	경주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	1회		●		초분광 분석
17	보물	경주 석빙고	2회	●			
18	보물	구례 화엄사 대웅전	2회	●			
19	보물	창덕궁 돈화문	1회	●			상시계측 하반기 가설덧집 설치(예정)
20	보물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1회		●		
21	보물	달성 현풍 석빙고	1회	●			정밀안전진단(모니터링 포함) 수행 예정
22	보물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2회	●		●	흰개미 탐지견 조사 병행 상시계측
23	보물	대구 파계사 원통전	1회	●			하반기 가설덧집 설치(예정)
24	보물	창경궁 관천대	1회		●		초분광 분석
25	보물	경주 불국사 대웅전	2회	●			
26	보물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1회		●		
총 26건(신규 1건) (국보 14건, 보물 12건)			연4회 1건 연2회 12건 연1회 13건	18건	10건	4건	상시계측 6건 (연구원 수행)

※ 점검 횟수 및 분야는 문화재 보존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안건번호 건축 2024-02-018

1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국보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주변 JTBC <민생네컷> 방송촬영(유튜브) 등 허가신청 13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13건	원안가결 11건 조건부가결 2건	
국보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충청북도 청주시 (○○○)	□ JTBC <민생네컷> 방송촬영(유튜브)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48-19 * 보호구역 내 ○ 내용 : 방송촬영 - 해당문화재 앞 광장 내 즉석인화사진(인생네컷) 부스(트레일러) 설치 및 시민 이용 - 촬영일 : '24.2.18. (일) - 예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트레일러 크기 : 2.7×1.86×2.35(m) - 예상 이용인원 : 약 100명 - 촬영인원 : 10명 - 촬영장비 : 고프로 3대, DSLR 3대, 핸디카메라 2대 - 기타사항 : 보조배터리(슈퍼탱크) 이용으로 별도 전기사용 없음	원안가결	'24.01.24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	□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로 조성(변경허가) ○ 위치 :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284-99번지 외 10필지 - 제3구역, 건물 1개동 증가로 개별심의 (보호구역에서 235m 이격) ○ 내용 : 기존 진입로 2부지를 급수장시설로 변경 및 건축물 1동 추가 - 신청면적 : 4,053㎡ (변경없음) - 건축면적 : 512.23㎡ (증 6.34㎡) - 연면적 : 860.92㎡ (증 6.34㎡) - 최고높이 : 7.5m (변경없음) - 건물동수 : 8동 (증 1동)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옹벽/석축 : 4.5m / 4m (변경없음) - 사업기간 : '23.3.~'25.3. ※ 현상변경 허가이력 ● 단독주택 6동 건립 및 진입로 조성 : '22.6.17. 허가(심의) ● 단독주택 7동 건립 및 진입로 조성(변경허가) : '23.3.20. 허가(자체)	원안가결	'24.01.24
보물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비	전라남도 곡성군 (○○○)	□ 태안사 성기암 무설전 건립 ○ 위치 :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산 18-1 - 제1구역, 개별심의(보호구역에서 280m 이격) ○ 내용 - 목적 : 노후한 무설전 철거 및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68.31㎡ / 68.31㎡ *기존 무설전 철거 : 60.54㎡ - 규모 : 정면 3칸, 측면 2칸 - 양식 : 소로수장집, 5량가, 맞배지붕 - 최고높이 : 7.12m - 사업기간 : '24.3.~'24.12. - 소요예산 : 5억원(군비)	원안가결	'24.01.24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고흥 능가사 대웅전	전라남도 고흥군 (○○○)	□ 주차장 및 야영장 가로등 설치 ○ 위치 :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322-2번지 일원, 386-2번지, 산132-5번지 일원 * 제1구역, 개별검토(보호구역에서 104m 이격) ○ 내용 : 주차장 및 야영장 가로등 설치 - 종류 : 태양광 LED 가로등 - 규격 : 100W, 높이 5m - 수량 : 15주 • 팔영산야영장주차장 5주, 팔영산주차장 3주, 팔영산 야영장 7주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 소요예산 : 1억원(국비)	원안가결	'24.01.24
보물 장흥 보림사 서 승탑	전라남도 장흥군 (○○○)	□ 태양광 패널 설치 ○ 위치 :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150-1 * 제1구역, 개별심의(보호구역에서 490m 이격) ○ 내용 : 축사 지붕 슬레이트 석면 철거 및 태양광 패널 설치 - 총발전량 : 99.75kw - 모듈크기 : 2,465×1,134×35mm - 모듈수량 : 150개 - 최고높이 : 7m (2m 증가) - 사업기간 : '24.1.~'25.1. - 소요예산 : 1억원(민자)	원안가결	'24.01.24
보물 안성 객사 정청	경기도 안성시 (○○○)	□ 기존도로 확장(진입로 신설) ○ 위치 :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242-6번지 * 제2구역, 도로 확장으로 개별심의(보호구역에서 244m 이격) ○ 내용 : 도로 확장 - 목적 : 자동차정비공장 예정 부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기존 6m 도로에 접하여 도로 확장 - 확장면적 : 83㎡ - 마감 : 아스콘포장	원안가결	'24.01.24

<table>
<tr><th>문화재명</th><th>소재지
(신청인)</th><th>사업내용</th><th>처리결과</th><th>처리일자</th></tr>
<tr><td>보물
홍성 고산사
대웅전</td><td>충청남도
홍성군
(○○○)</td><td>□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및 작업로 개설
○ 위치 :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산48
＊ 제1구역, 개별심의(문화재에서 500m 이격)
○ 내용 :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및 작업로 개설
- 토목공사
• 작업로(B=3.0), 116m
• 관리사 설치(33㎡, 15㎡)
- 복구공사
• 풀씨뿌리기(538.0㎡)
• 소나무(H=0.5m), 210주
- 사업기간 : 허가일～ ‘26.11.30.</td><td>원안가결</td><td>‘24.01.24</td></tr>
<tr><td>보물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td><td>경기도
화성시
(○○○)</td><td>□ 공동주택 신축
○ 위치 : 화성시 송산동 202-66번지 일원
＊ 제6구역, 최고높이 32m이상(보호구역에서 460m 이격)
＊ ‘18년 4차 건축분과위원회 : 원안가결
＊ ‘21년 11월 자체검토회의 : 원안가결
○ 내용 : 공동주택 신축
- 사유 : 기허가 기간 만료로 신규신청,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변경(옥탑 태양광패널 → 지하 2층 주차장 지열설비)
<table><tr><th>구분</th><th>최초 허가
(‘18년 4차)</th><th>변경허가
(‘21년 11월)</th><th>금회</th></tr><tr><td>신청인</td><td>○○○</td><td colspan="2">○○○</td></tr><tr><td>대지면적</td><td>10,719㎡</td><td>10,866㎡</td><td>10,649㎡</td></tr><tr><td>건축면적</td><td>2,454.34㎡</td><td>2,514.66㎡</td><td>2,507.41㎡</td></tr><tr><td>연 면 적</td><td>34,052.2㎡</td><td>34,999.4㎡</td><td>34,922.8㎡</td></tr><tr><td>최고높이</td><td>48m</td><td>48.45m</td><td>48m</td></tr><tr><td>신재생
에너지</td><td>-</td><td>태양광시스템</td><td>지열시스템</td></tr></table></td><td>원안가결</td><td>‘24.02.05</td></tr>
</table>

<table>
<tr><th>문화재명</th><th>소재지
(신청인)</th><th>사업내용</th><th>처리결과</th><th>처리일자</th></tr>
<tr><td>보물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td><td>경기도
화성시
(ㅇㅇㅇ)</td><td>□ 도로 개설
ㅇ 위치 : 화성시 송산동 202-86번지 일원
* 제6구역, 도로 신설·확장(보호구역에서 450m 이격)
* '19년 8월 자체검토회의 : 원안가결
ㅇ 내용 : 도시계획 도로 개설(3,677.3㎡)
- 사유 : 기허가 기간 만료로 신규신청, 측량에 따른 도로명 및 면적 변경 및 신청인 변경
• 중로 2-6호선(B=15～23m, L=120m)
• 소로 1-3호선(B=10m, L=100m)
• 소로 1-5호선(B=10m, L=176m)
<table>
<tr><th>구분</th><th>최초 허가
(`19년 8월)</th><th>금회</th></tr>
<tr><td>신청인</td><td>ㅇㅇㅇ</td><td>ㅇㅇㅇ</td></tr>
<tr><td>면적</td><td>3,610㎡</td><td>3,677.3㎡</td></tr>
<tr><td>규격</td><td>• 중로 1-8호선
(B=23m, L=165m)
• 소로 1-3호선
(B=10m, L=100m)
• 소로 1-5호선
(B=10m, L=176m)</td><td>• 중로 2-6호선
(B=15~20m, L=120m)
• 소로 1-3호선
(B=10m, L=100m)
• 소로 1-5호선
(B=10m, L=176m)</td></tr>
</table></td><td>원안가결</td><td>'24.02.05</td></tr>
<tr><td>보물
창녕 석빙고</td><td>경상남도
창녕군
(ㅇㅇㅇ)</td><td>□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ㅇ 위치 : 창녕군 창녕읍 교리 248-1 일원
* 보호구역(문화재에서 36m 이격)
- 개별심의
ㅇ 내용 :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 건축규모 : 36㎡
- 높이 : 2.4m / 최고높이 3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 사업비 : 70,000천원</td><td>원안가결</td><td>'24.02.05</td></tr>
</table>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주향교 대성전	제주도 제주시 (○○○)	□ 한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변경허가) ○ 위치 : 제주시 용담1동 2581-4 일원 * 제5구역, 교량 신설(보호구역에서 52~340m 이격) ○ 내용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사유 : 기허가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교통우회용 임시가설교량 1개소 설치 • 하천 복개구간 철거 • 교량 3개소 재가설(합성형 라멘교) • 보도교 2개소 신설(합성형 라멘교) • 양안 캔틸레버 설치 (좌안 L=320m, B=13m, 우안 L=270m, B=13m) • 교량 접속도로, 상하수도 관로 이설, 터파기 등 토목공사 • (추가)임시가설교량 1개소 신설(3년 후 철거) • 기간 : 2023.11. ~ 2025.12. • 소요예산 : 380억원	원안가결	'24.02.05
보물 공주 계룡산 중악단	충청남도 공주시 (○○○)	□ 이동화장실 부지조성 및 설치 ○ 위치 :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산1-1 * 제1구역, 개별심의(문화재에서 200m 이격) ○ 사업내용 : 이동화장실 부지조성 및 설치 - 사업면적 : 170㎡ - 규모 : 1동 / 지상1층 - 건축 및 연면적 : 19.5㎡ - 건폐율 / 용적율 : 11.47% - 콘크리트포장 : T=0.2, 102㎡ - 석축 쌓기 : H=1.0~3.0m, 47㎡ - 사업기간 : 허가일~ '26.12.31.	조건부가결 (주위 경관과 어울릴 수 있게 황토경화 포장 등 추가)	'24.01.24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경상북도 영천시 (○○○)	□ 농막(비닐하우스) 설치 ○ 위치 :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450 * 제1구역(문화재에서 320m 이격) ○ 내용 : 농막(비닐하우스) 설치 - 목적 : 농기구, 농자재 등 보관 - 구조 : 비닐하우스(강파이프/천막) - L 5m × W 4m × H 2.7m	조건부가결 (3년 존치기한 후 재검토)	'24.02.05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접수 11명